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恩光衍世





추사 김정희의 글씨, 은광연세(恩光衍世)



恩光衍世
은광연세

표제 은광연세(恩光衍世)는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남긴 글이다.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은 의인 김만덕에 대한 칭송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후,
추사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까지 계속되자
그의 선행을 기려
3대손인 김종주에게 써주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2010년, 6대손인 김균선생이 가보로 보관해 오다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의 전신인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에 기증하여
현재는 김만덕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擔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밥 한 그릇이라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없는 재물은 썩은 흙과 같다.”

- 거상 김만덕

2023

Vol.08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제8호

恩光玆世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CONTENS



12

은광연세 이야기	02
한 줄의 나눔	03
발간사	08
-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양원찬	
축사	0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PART 1.

혼저옵서 김만덕기념관

김만덕의 생애	12
김만덕기념관 소개	16
2023 나눔 트렌드	18
- 숫자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기부 현황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사업 소개	22
- 빛을 잇는 사람들	
김만덕은 왜 바다를 건너 한양으로 가려 했을까?	28

PART 2.

은광연세 테마이야기

테마1. 은혜:은恩 - 김만덕 이야기

김만덕을 기록한 사람들	36
김만덕 기념사업 법인 설립 20주년	42
쉬영갑서 1. 기획전시	46
- 제주 청년작가 10人10色 전시 「Spring, Spring!」	



22



42

테마2. 빛:광光 - 김만덕주간

사진으로 본 김만덕주간	50
모두가 행복한 나눔, 만덕 할망과 함께해요	62
제44회 만덕제 봉행	64
제44회 김만덕상 시상식 - 변명호, 문영옥 김만덕상 수상	70
나눔큰잔치	72
행사스케치	78
쉬엄잡서 2. 기획전시 - 2023 김만덕기념관 개관 8주년 특별기획 사진전 「산지천:기억을 건다」	80



테마4. 세상:세世 - 2023 주요 행사

도내 4개 나눔기관 공동사업 - 나눔으로 모두 행복한 제주를 위해 맞잡은 손	106
2023 만덕문화대상 ‘어린이 문화 콘텐츠 공모전’	107
김만덕기념관 나눔봉사학교 나눔가족봉사단	110
김만덕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112
김만덕기념관 만족도 조사	114
김만덕기념관 후원 및 기탁 리스트	116

테마3. 넓은:연衍 - 김만덕의 정신

출장기행문 - 의암별제 참관기	84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94



발간사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23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김만덕기념관의 활동들을 모아 『은광연세』 제8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김만덕의 열이 살아 숨 쉬는 산지천을 조명하는 사업의 시작인 <산지천:기억을 걷다> 등 제주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와 미래세대인 유아-어린이들

에게 김만덕의 나눔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국 어린이 대상 공모전, 올해로 44회를 맞이한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과 나눔큰잔치 등 김만덕주간 행사,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사업과 나눔봉사학교를 통한 나눔가족봉사단의 활동 등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는 데 솔선수범하고자 했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 정신의 세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김만덕재단과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국제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만덕기념관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늘 애정으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양원찬 

축사



이웃을 위한 나눔이 더욱 빛을 발하는 연말연시,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8호가 발간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나눔문화 기념관,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하며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힘쓰고 계신 김만덕 재단 양원찬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인 김만덕은 신분과 성별의 차별이 엄격했던 시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뛰어난 경영인이자, 위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임금인 정조는 김만덕의 덕을 높이 사 만덕전을 집필하라 명했고, 당대의 내로라하는 지식인들 역시 의인 김만덕을 고귀한 뜻을 칭송하며 앞다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시대, 조선 최초의 여성 CEO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준 의인 김만덕의 가치를 우리 제주는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전 지구적 빈곤퇴치에 앞장서거나, 사회 환원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들을 발굴·격려하고자 현재의 김만덕상을 국제화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김만덕상의 국제화를 통해 전 세계에 의인 김만덕의 가치를 알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김만덕을 격려하며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정은 나눔의 실천으로 더욱 따뜻해지는 제주 만들기에 힘쓰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수놓음 정신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처럼 제주 공동체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8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Part. 1

혼저옵서 김만덕기념관

김만덕의 생애	12
김만덕기념관 소개	16
나눔 트렌드, 통계	18
- 숫자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기부 현황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사업 소개	22
- 빛을 잇는 사람들	
김만덕은 왜 바다를 건너 한양으로 가려 했을까?	28

거상(巨商)이자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을 기리며



김만덕 표준 영정 크기 : 가로 110cm, 세로 190cm / 그림 : 윤여환 화백

- ※ 2009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위원회에 김만덕 영정에 대한 심의를 의뢰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4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0년 7월 21일, 김만덕 영정을 ‘국가 지정 표준 영정 제82호’로 지정했다. 표준 영정은 우리 역사상 민족적으로 우리름을 받는 선현들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 ※ 표준 영정에 실린 김만덕 영정의 용모는 친정 후손 얼굴의 특징과 김만덕상을 수상한 제주 여성들의 공통된 특징을 채집 분석하고, 김만덕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김만덕의 용모 특징을 찾아내어 사업가적인 품격과 나눔 정신이 깃든 인자한 기상을 담아냈다.

김만덕 출생

김만덕은 조선 시대 영조 15년(1739년) 제주, 양인인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 씨 사이에 2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퇴기(退妓)의 집에 수양딸로 들어가 관기가 되어 천민의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한 김만덕은 어렵게 관기의 신분을 청산했다.



김만덕, 관습을 뛰어넘어 장사 시작

조선 사회는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강한 사회였다. 그러나 공물을 쌀로 통일한 납세제도인 대동법이 시행된 17세기 이후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전국에 1,000여 개의 시장이 들어서고 각종 특산물이 거래되었고 이를 통해 큰돈을 번 상인들은 조선 후기에 신흥 부자로 떠오르게 된다.

같은 시기 제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평등과 공정이었다. 제주 여성은 농사에서도 남성과 공동으로 또는 주로 담당했으며 바다에서도 해녀로 일하면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주 사회의 분위기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김만덕은 포구가 지닌 상업적 중요성을 미리 읽고 건입포구에서 물산객주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했다.

갑인 흉년~김만덕의 기민구휼

정조 16년(1792년)부터 여러 해 흉년이 계속되어 제주도민 수 만여 명이 굶어 죽어 나갈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나라에서 보낸 구휼미마저 풍량을 만나 모두 잃게 되었다. 정조 18년인 1794년의 흉년을 일컫는 갑인년 흉년은 극심한 흉년의 고유명사가 되었을 정도로 참혹했다.

이때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그중 10분의 1을 취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제주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다.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내놓은 김만덕의 기부는 굶주려 죽어가는 제주도민 전체를 열흘 동안 연명시키고 수 천 명의 백성을 살려낼 만큼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만덕의 두 가지 소원

김만덕의 선행에 임금이 상을 주려 하자, 김만덕은 이를 사양하고 ‘다만 서울에 가서 왕궁을 보는 것’과 ‘금강산을 유람하는 것’이 소원이라 말했다.

당시 제주는 출륙금지령(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킨 정책) 때문에 여성의 출륙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김만덕의 소원은 김만덕의 당찬 행동과 혁신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일화다.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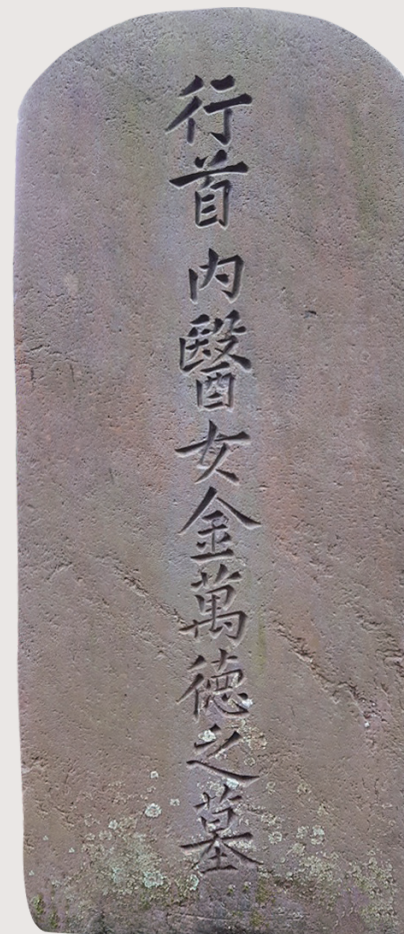
당시 임금인 정조는 김만덕을 궁궐로 초대해 여성의 벼슬 중 가장 높은 내의원 의녀반수 벼슬을 내린 뒤 만나 기민 구제에 헌신한 김만덕의 공로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대로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었다.

정조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때문에 김만덕은 서울 장안의 화제의 인물이 되었고 이를 본 채제공은 당시 ‘김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모두 한 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고 기록했다.

김만덕 묘비

제주로 돌아온 김만덕은 순조 12년인 1812년 10월 22일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화북에서 제주성으로 가는 길목인 ‘ㄱ으니ㅁ루’라는 언덕에 묻혔다.

김만덕 묘비는 그의 행적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비문에 그의 이름 석 자와 직함인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조선시대 여성의 일반적인 묘비와 다르다. 김만덕의 묘비는 조선시대에 변방의 섬사람, 그것도 여성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이름과 삶의 행적을 남겼다는 것으로도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전면 行首內醫女金萬德之墓 (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

후면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미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울여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이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나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화려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아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 봉을 두루 유람하고 급기야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대부 모두가 글과 전기를 써주었으니 비록 옛적에 착하고 아리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방불케 하였고 눈은 쌍겹눈으로 환하고 맑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체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원능(영조의 능으로 영조를 말함) 기미년(영조 15년)에 낳고 지금 임금 임신년(순조 12년) 10월 22일에 죽었으므로 다음 달에 ㄱ으니ㅁ루에 장사하니 갑좌(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쪽)의 무덤이다. 임금이 즉위하신지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

김만덕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곳

김만덕기념관은 도전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곳이다.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라는 전시 주제 아래 제주를 살린 빛, 김만덕의 일생 이야기에서 도전과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며, 나눔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이다.

1층

나눔문화관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



나눔문화가 퍼지는 열린 나눔 문화공간이다.
만덕홀(종합안내)과 만덕섬광(열린 나눔 커뮤니티룸),
만덕갤러리(기획전시실)가 있다.

2층

나눔명상관 은혜로운 빛을 받는다

김만덕의 정신을 마음에 담는 명상관이다. ‘은혜의 빛’ 은광연세가 빛으로 새어 나오는 원형조형물 아래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나눔실천관 은혜로운 빛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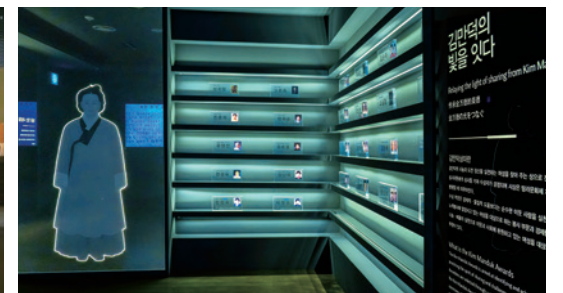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바꾸는 나눔을 알아가는 체험관이다.



3층

상설전시관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

제주를 살린 빛, 김만덕 정신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다. 만덕의 생애와 제주의 거상, 만덕의 숭고한 나눔정신, 김만덕(의녀반수, 금강산 유람길), 김만덕 기념사업 등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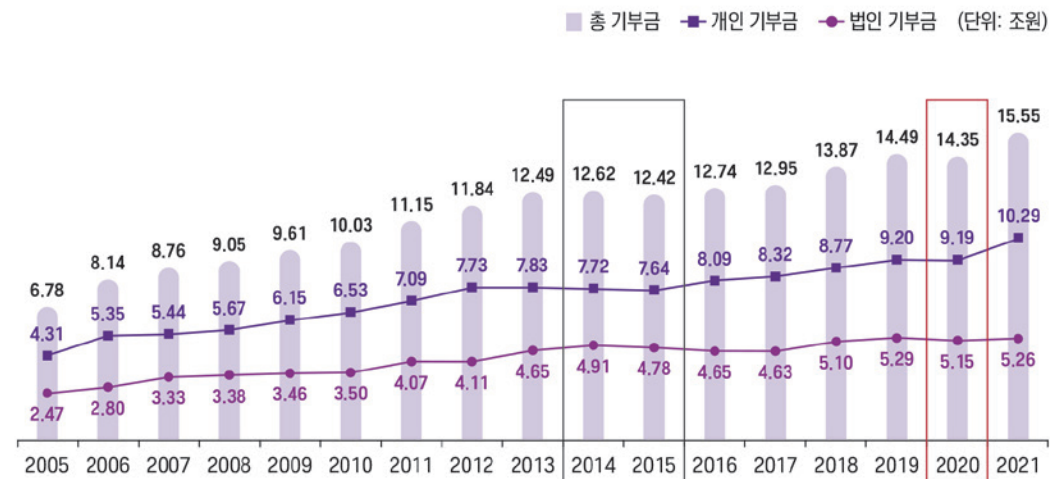


관람안내 관람시간 : 09 - 18시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료 : 무료	대관안내 기본시설 : 좌석수 200석, 강당면적 221.90m², 무대면적 28.22m² 오전, 오후, 야간 기준 그밖의 사용 : 냉난방시설(1시간), 상업용 영상촬영, TV촬영, 영화촬영 ※시설허가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버스(동문로터리, 용진교 하차 도보 5분) 간선 315 / 지선 426, 431, 432, 465, 466	
 김만덕기념관 mandukmuseum.or.kr	주소 : (우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7(건입동) 전화 : (064)759-6090 FAX : (064)759-6097 홈페이지 : www.mandukmuseum.or.kr

2023 나눔 트렌드

숫자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기부 현황

【국내 기부금 총액(인플레이션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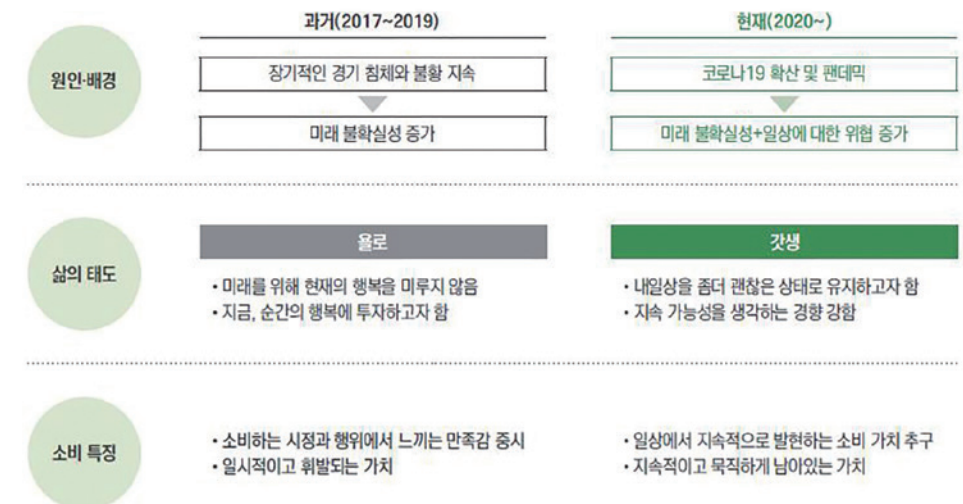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2021」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국내 기부금 총액은 15조 5,5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인기부금은 10조 2,938억 원, 법인기부금은 5조 2,587억 원이다.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기부금 신고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부터다.

따라서 2005년부터 지난 15년간 기부금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기부금 규모는 약 2.3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4~2015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2014년부터 기부금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개인 기부 트렌드

【소비자의 달라진 가치관】



출처 : 송혜윤, 이재훈(2022.08.26) 플렉스는 끝났다, '갯생시대' 소비 트렌드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

최근의 소비 및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기부자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갯생'이라는 키워드다. 2017년~2019년까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올로' 트렌드가 가고, 2020년 이후에는 '갯생'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갯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生)의 조어로, 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인생(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갯생은 하루하루 '나를 위한'작지만 좋은 습관을 쌓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 지속되고 채워지는 일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갯생 트렌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무기력과 우울증이 심화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내 삶에 활력과 이로움을 주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부 역시 갯생을 살기 위한 '소비의 일종'으로서의 기부이다. '내가 가진 돈으로 소비를 통해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 '기부도 이와같이 소비를 통한 의사표현의 일종'이라는 의견들은 소비와 기부의 연결고리를 잘 설명해 준다. 갯생 트렌드의 핵심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현재의 활동과 소비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부가 갯생 트렌드와 함께 청년세대에게 더 확산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때 유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기부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하여, 일상에서 쉽고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사회공헌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 트렌드를 꼽자면 ‘코로나19’와 ‘ESG’일 것이다.”

기업 기부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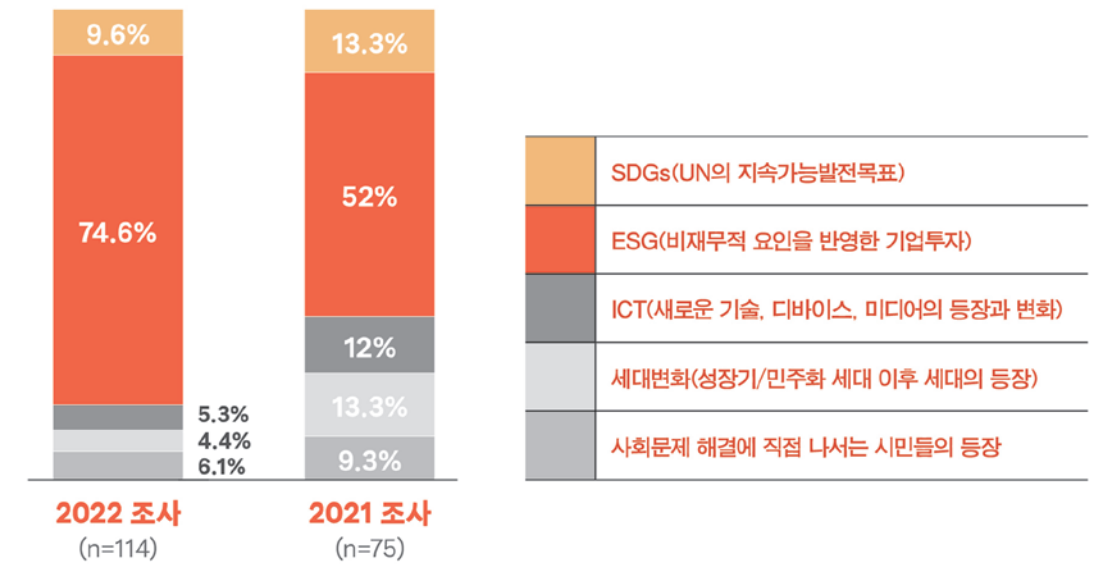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업사회공헌 추세를 살펴보면, 예전보다는 트렌드에는 조금 덜 쫓고 있으며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사회공헌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공헌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질상 사회적 이슈, 변화,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 변화, 이슈, 트렌드를 사회공헌에 적절히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업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고 2023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트렌드 반영이나 이슈 쫓기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다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기업사회공헌을 시작한 시점이 길게는 20년이 넘었고, 어지간하면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이 안정화된 단계이다. 기업들은 지난 시간 동안 이슈와 트렌드를 쫓아 이런저런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별로 자기 기업에 맞는 사업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성숙시키고 브랜드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브랜드화한 기업들도 꽤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가 등장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연장선에 있거나 대상이나 지역이 중복되어 확장하기 쉬운 경우에는 그 이슈나 트렌드를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택 나서지 않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최근 기업사회공헌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 트렌드를 꼽자면 ‘코로나19’와 ‘ESG’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불가항력적인 사회적 위기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인식이 기업 내부에 생긴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도전적인 양적 성장 일변도의 기업경영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기업에 주었다. 코로나19가 기업사회공헌에 끼친 영향으로는 ‘대규모 인원동원 일회성 행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대규모 동원행사 대신 소규모 자발적 활동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기업사회공헌, 특히 임직원 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는 MZ세대의 키워드 ‘공감’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Q. 현재 귀하의 기업의 사회공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 기업사회공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출처 : 2022년 기업사회공헌 백서

『2022년 사회공헌백서』가 기업사회공헌담당자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기업사회공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으로 74.6%가 ESG라고 응답했다. 즉, ESG가 기업사회공헌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1순위인 것이다. ESG가 기업경영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2020년과 2021년 사회공헌과 ESG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대부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 사업에서 ESG적인 요소를 골라내서 그것을 지속가능보고서에 실리기 위한 재포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해도 ‘플로깅’과 같이 예산이나 자원 면에서 부담이 없는, 그리고, 임직원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뤘다. ESG와 상관없이 기존 사회공헌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기업들은 변함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기업사회공헌의 성과를 어떻게든 ESG와 연계하거나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2023 기부 트렌드 - 기부효능감을 잡고, JUMP UP!』,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빛을 잇는 사람들 -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고수선 고혜영 이창옥 조금숙 이옥이 김서옥 성귀량 고춘옥 김경생
오테인 김순이 김진현 홍정형 박희순 문초실 장옥순 고경자
메리스타운튼 진춘자 양화순 김태화 김순자 고길향 김문자 고추월
김인순 전귀연 김 정 이정자 한월자 유양선 김순심 오정희 김부자
김순여 김주숙 신언임 강혜전 송경애 홍영선 강명순 전혜성 전정숙
강난파 강옥선 강영희 좌옥화 김영순 박경란 김옥산 김순희 김추자
김경란 정정숙 박명순 변명효 문영옥

매년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개최

매년 김만덕의 기일(10월 22일)에 가까운 일요일, 사라봉 모충사에서는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김만덕상은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계승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에 따라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한 모범여성을 발굴하여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제44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풍경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 변명효 씨(봉사 부문)와 문영옥 씨(경제인 부문)의 수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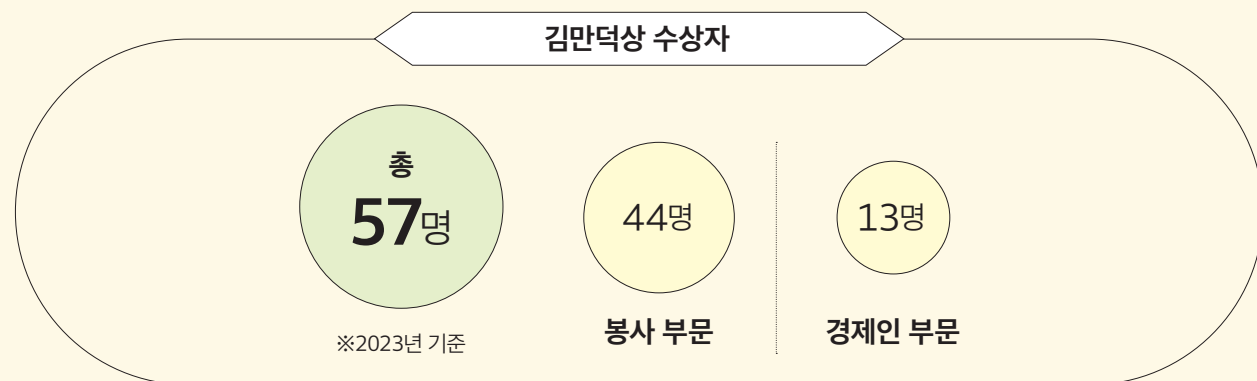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1980년 만덕봉사상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만덕봉사상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경제인 부문을 추가하여 매년 1회 시상하고 있다.

수상 부문으로는 순수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부문과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 베품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인 부문이 있다.


2023년 현재까지 수상한 인원은 봉사 부문 44명, 경제인 부문 13명 총 57명이다.



김만덕상 수상자 영상 제작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김만덕의 정신을 잇는 김만덕상 수상자들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이를 영상(빛을 잇는 사람들)으로 제작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그 시작으로 1회 수상자인故고수선 여사와 19회 수상자인 진춘자 여사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 학생시절부터 항일투쟁, 독립운동 전개 (건국훈장 애족장)

· 제주도 1호 여의사로서 제주와 충남 강경 등에서 병원을 개업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

· 한글무료강습소를 설치해 문맹퇴치에 선도적 역할

· 4·3 사건과 6·25 전쟁 이후 모자원 및 홍익보육원을 설립해 사회복지활동을 펼침

· 한국부인회 도지부장으로 여성 지위향상에 기여

故 고수선 여사(1898 ~ 1989)
제 1회 김만덕 상 1980년 10월 28일 수상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사업으로 1회 수상자故고수선 여사의 영상을 제작했다.

김만덕상 1회 수상자 고수선 여사



1회 수상자인 고수선 여사(1898~1989)는 애국심과 봉사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간 인물이다. 제주도 1호 여의사로 제주와 충남 강경 등에서 병원을 개업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해 온 인물이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정신으로 무료 한글강습소를 설치해 문맹 퇴치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모자원과 보육원,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며 활발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 제1회 김만덕상을 수상하였다.



제주 1호 여의사였던 고수선 여사는 ‘어릴 때 잘 가르쳐야 한다’며 보육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깨우쳐야 국력을 키울 수 있다’며 야간 한글강습소를 운영했다.



야간 한글 강습소 운영

김만덕상 19회 수상자 진춘자 여사



19회 수상자인 진춘자 여사(1939~)는 생활 속에서 봉사를 실천해 온 인물이다. 함께 사는 이웃들을 위해 연탄재 구멍에 버려진 박스를 줍는 것을 시작으로 재활용품 수집, 폐식용유를 활용한 재생비누 제작판매금으로 양로원, 보육원에 생선, 쌀 등 생필품 기부를 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왕에 시작한 봉사, 끝을 보자’라는 심정으로 봉사를 이어간 진춘자 여사. ‘내가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밝힌 그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봉사가 최고”라고 말한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 고수선 여사

“내가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봉사가 최고이다.” - 진춘자 여사

김만덕상 수상자들의 기록, 빛을 잇다

2023년부터는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사망한 수상자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수상자와 수상자를 기억하는 사람들, 기록이 사라지기 전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회故고혜영, 3회故이창옥, 4회故조금숙, 5회故이옥이, 6회故김서옥, 20회 양화순, 25회 고추월 등 7명의 아카이브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추후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서적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도 함께 진행하였다.

다양한 여성단체 운동으로 여성 인권 신장과 소비자 보호, 불우이웃 돕기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던故고혜영 여사, 당시 드물었던 여성 이장으로서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활동했던故이창옥 여사, 어린이들이 국가의 재산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친 4회 수상자故조금숙 여사, 의사인 남편과 함께 무의촌 지역에서 무료 진료 활동과 제주 여성들의 취업과 전문직업훈련을 위해 최초의 간호전문학교를 설립한 5회 수상자故이옥이 여사, 제주도 초대 여성 장학사로서 여성들의 교육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주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공을 세운 6회 수상자故김서옥 여사 등 고인이 된 수상자에 대한 아카이브를 통해 잊혀가는 수상자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부녀회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평생 이웃을 위해 작지만 큰 봉사를 실천한 20회 양화순 수상자, 월자포장을 설립, 사업을 통해 모은 재산을 꾸준히 장학금으로 기부해 온 25회 고추월 수상자 역시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통해 영상과 구술 자료로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꾸준히 김만덕상 수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 많은 사람이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만덕은 왜 바다를 건너 한양으로 가려 했을까?

강영진

김만덕기념관장

제주 사람을 가뉘놓은 ‘출륙금지령’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

김만덕은 한양에 가서(1796년 가을) 정조로부터 의녀반수의 직을 받아 궁에도 들어가 보고, 나랏돈으로 금강산을 구경한(1797년 봄) 후 고향 제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정조는 왜 기녀 출신 여자 상인인 김만덕을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하고 기록으로 남겼을까? 조선시대 굶주린 백성을 돌보는 일(진휼 또는 구휼)은 임금의 역할이자 책임이었다. 태풍, 가뭄, 홍수 등 재해를 입었거나 흉년시 사재를 내어 백성을 구한 양반인 경우 임금은 관직을 주거나 포상했었다. 왕조실록에 보면 제주에서도 구휼의 댓가로 현감 자리를 주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정조는 1796년 6월 김만덕이 가뭄과 흉년으로 제주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일군 전 재산을 내놓아 쌀을 사서 구휼했다는 사실을 제주목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정조는 여자인 김만덕에게 관직을 줄 수 없어 그녀의 소원대로 들어주고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제주목사에게 지시했다.

김만덕의 소원은 단 하나, 한양에 가서 궁궐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고 당시 제주목사는 그해 7월 말 그녀의 소원대로 육지로 내보냈다고 임금에게 보고하게 이른다. 그녀의 나이 환갑에 다다른 58세 때의 일이었다.

김만덕은 기녀에서 양인으로 회복한 20대 때부터 제주 성안인 건입포에서 객주를 운영하며 육지 상인과 거래해 많은 부를 이뤘다. 그녀는 30여 년간 수 많은 육지 상인과 제주특산물과 육지의 물산을 오랫동안 주고받으면서도 육지로 나간 적이 없었다. 장사를 하는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거래하는 물건을 다루는 육지 상인들의 활동 거점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육지로 나갈 수 없어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김만덕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왜 육지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왜

“제주 사람은 제주 섬에서 태어난 이유로 제주 섬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의 허락을 받고 제주 밖으로 나간 여인은 김만덕이 유일했다.”

면천이나 다른 상을 원하지 않고 육지로 나가려 했을까?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에 거친 바다를 건너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조선 임금 인조 7년인 1629년에 내려진 제주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월해금법(출륙금지령) 때문이었다. 특히 제주 여자들은 육지로 나가지도 못하고 육지출신 남자들과 혼인도 금지됐었다. 제주 사람은 제주 섬에서 태어난 이유로 제주 섬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의 허락을 받고 제주 밖으로 나간 여인은 김만덕이 유일했다.

활발한 해상교류를 하던 탐라인들 기상 꺾어

옛 제주 사람인 탐라인은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던 해상인이었다. 탐라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웃 나라와 활발한 교역을 하던 해양교류의 중심지였다.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한 선박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났고 임진왜란 때 이름을 떨친 덕판배 제조기술자 역시 두모악으로 불리던 제주 사람들이었다. 두모악이 만든 덕판배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선체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더 빠르다”고 기록하고 있다. 덕판배는 제주 해안의 많은 바위들을 이기기 위해 통나무로 앞에 덧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탐라국 시절 중국 남부, 일본, 유구국, 대만 등을 드나들던 배로 장거리 항해나 물살이 거칠어지거나 암초가 많은 곳에서도 끄덕없었다. 제주에는 이 배와 이 배를 이용한 항해술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는 화산섬인 제주의 토질은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해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해금법(越海禁法)이 내려진 이후 제주는 더 이상 전 세계를 누비던 덕판배를 만들 수도 만들 필요도 없게 됐다. 그래서 테우가 만들어졌다.

제주의 테우는 육지와 붙은 갯가 연안에서 멜과 자리돔을 잡고 해조류를 채취하던 수단이었다. 물때를 놓치면 돌아오기 어려워 먼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뗏목에 불과했다. 또 원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낮은 수준의 연안어업으로 활동 영역은 축소됐다. 섬사람들을 섬 안에 가둠으로써 탐라인이 지닌 해양교류의 기상을 꺾어 버린 것이다.

교류가 단절된 대신 제주의 신화, 제주의 언어, 독특한 문화가 고유성을 지닌 채 보존 계승되는 효과를 얻었다. 더욱이 모두가 가난했기에 빈부 격차가 없었고 대부분 같은 일을 하는 동질성이 유지되고, 섬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면서 켜당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중앙 권력에 의한 인위적인 고립의 결과였다.

“제주에 태어난 이유로 이 고역의 짐을 져야 했던 도민들이
견디다 못해 고향 제주를 떠나 육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 역을 담당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출륙금지령을 내렸다.”

월해금법(越海禁法)... 왕실 진상 위한 고역의 섬으로 고립된 제주

인조 7년(1629년) 8월13일자 조선왕조실록에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제주·정의·대정현)의 군액이 감소하자, 비국(비변사)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임금)이 따랐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로부터 제주는 1823년 2월24일 순조가 섬의 남녀가 내지와 왕래하며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순조실록)하기까지 200년 가까이 임금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는 지역으로 철저하게 고립됐다.

제주 사람들은 왜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전해야 했고, 조선은 제주 사람들을 섬 안에 가둬놓아야 했을까? 독립국이던 탐라가 고려말 조선초 본토에 복속돼 중앙관리가 파견되면서 제주와 제주 사람의 운명은 가혹하게 변했다. 제주는 화산섬인 관계로 농사를 지을만한 땅이 거의 없어 농업생산을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굴이 있었고, 질 좋은 말이 생산됐으며 전복, 미역 등 해산물이 풍부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제주에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 제주특산물의 진상으로 대체했다. 다른 공물은 국가재정이라 흉년이 나 천재지변에는 깎아주기도 했고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는 돈이나 쌀, 옷감으로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상은 왕실 재정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았다. 제주의 진상품은 다른 지역 특산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제주에는 진상용 말을 키우는 목자역, 진상 감귤을 생산하는 과원역, 전복과 오징어를 납품하는 포작역, 해산물을 채취하는 잡녀역, 진상선 운송을 담당하는 선격역, 하위군병인 방군역을 6고역(苦役)이라고 불리웠다. 제주에 태어난 이유로 이 6고역의 짐을 져야 했던 도민들이 견디다 못해 고향 제주를 떠나 육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 역을 담당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출륙금지령을 내렸다.

굴 진상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뤄졌다. 제주에서만 나는 귀한 것이라 굴이 올라오면 굴을 나눠주며 황감제라는 특별한 과거시험도 있었다. 그런데 진상 굴이 운송 중에 썩는 일이 발생하면 굴 진상 책임자인 제주목사는 파직되는 등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굴을 수확해 바쳐야 할 사람들만 힘들었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감귤원을 관리했으나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집집 마다 굴나무를 심게 하고 굴꽃이 피면 일일이 수를 적었다가 그만큼 바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감당할 수 없던 도민들은 뜨거운 물을 부어 굴나무를 죽여 버렸다. 조선 후기가 되자 제주의 굴나무는 전부 사라질 정도였고 제주의 감귤 농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조선이 멸망한 후였다.

6고역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목자역이었다. 말 키우고 진상하는 일이 고통스러워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다. 비싼 말을 돌보다 병들거나 죽으면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했다. 제주에 유배왔던 선조의 일곱째 아들 인성군의 아들 이건은 ‘목자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다’라고 안타까운 현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제주목사 이형상도 ‘말값을 보상하기 위해 부모를 판 목자가 5명, 처와 자식을 판 목자가 8명, 자신을 저당 잡힌 목자가 19명, 동생을 판 목자가 26명에 이른다’고 기록해 놓았다. 미역은 환금성도 좋고 보관과 운반이 용이했다. 미역 채취 기간도 짧은 만큼 비교적 덜 힘들고 쌀과 소금으로 바꾸기 쉬웠다. 하지만 미역은 제주에 온 관리들이 한몫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어서 잡녀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다.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기록을 보면 ‘포구의 관공리는 채취하는 대로 다 움켜쥐니 포녀(바닷가 여인)는 그 독한 주먹이 무서워 감히 큰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알몸으로 발을 구르며 여울 위에 섰다가

빈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니 이 무슨 꼴인가’라고 한탄했다.

1601년 반란 음모 사건을 위무하러 제주에 왔던 안무어사 김상헌은 “제주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많은 데다, 관리들이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된다. 포작인(전복 채취하는 남자)들은 그 일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고 익사하는 등 열에 둘, 셋만 남았는데 거둬들이는 진상의 물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때문에 제주 여자들은 포작인들과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고 남사록에 기록했다.

포작인들은 요구되는 전복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럴 때 마다 포작인은 옥에 갇히고 곤장을 맞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포작인의 아내가 전복을 따와야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속담에 “보재기 3, 4대민 초상을 물에 녹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포작인 3-4대 지나면 바다에 모두 빠져 죽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다. 전복을 수확하던 포작인들은 살기 위해 제주를 떠났고, 그 포작인의 짐을 대신한 것이 미역을 캐던 잡녀였다.

김상헌은 또 “백성들의 딱한 처지가 임금에 알려질까 봐 수령들은 진상하러 가는 자 말고는 아무도 섬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섬사람들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육지에 나가기를 마치 천당에 가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남사록에 남겼다.

왕실에 보낼 진상품을 채우기 위한 제주도민의 어려움에 대해 이를 지켜본 많은 선비, 관료들이 이처럼 많은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실제로 정조 원년인 1776년에 편찬된 <공선정례>에 따르면 왕실에 대한 전복 진상 물량이 다른 도에 비해

“정조는 제주의 전복 진상이 혹독함을 알고는

전복 진상 금지를 여러 차례 지시했음에도 없어지지 않자

1800년 4월 7일, ‘전복을 잡지 말도록 한 제주의 규례에 의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정조실록).”

제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86.9%인 18만 9340개였다. 이 물량은 중앙관부에 적혀 있는 목표량이고, 제주 현지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전복을 바쳐야 했다. 관리들의 중간착취가 그만큼 심각했다.

개혁적인 실학자였던 정약용조차 제주 섬사람들의 고된 생활이 단지 수재, 풍재, 한재라는 열악한 기후환경 탓으로 봤을 뿐 가혹한 진상의 고역 때문인 줄은 전혀 몰랐던 듯 하다. 그가 제주에서 감귤을 올린 일에 대해 지은 <타라공굴송>을 보면 ‘제주 섬에 임금이 진흙을 베푸는 고마움에 섬 백성들이 기꺼이 진상을 바친다’고 읊었으니 말이다.

정조는 제주의 전복 진상이 혹독함을 알고는 전복 진상 금지를 여러 차례 지시했음에도 없어지지 않자 1800년 4월 7일, ‘전복을 잡지 말도록 한 제주의 규례에 의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정조실록).

왕족조차 예외 없었던 금기를 넘어서 김만덕

월해금법은 일반 섬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주에 유배온 왕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정도로 엄혹했다. 인조 6년인 1628년 역모에 휘말려 죽은 선조의 아들 인성군의 가족들이 제주로 유배돼 오랜 세월 제주에서 살다가 인성군의 다섯 아들 가운데 장남과 차남 사남이 제주 여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다. 인조 13년 이들의 유배지를 육지로 옮기라고 명령했는데 출륙 금지령 때문에 처자식을 데리고 섬을 나갈 수 없었다. 사면된 후 제주에 남아있던 처자식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은 허락하려 했으나 대신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에서 얻은 자식들만 어머니 없이 제주를 떠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야 했다.

제주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출륙 금지령은 제주의 인구를 확보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던 듯 하다. 출륙 금지령이 내려진 지 반세기가 지난 1672년 제주 인구는 2만 9578명 까지 감소했다. 세종 당시 인구가 6만 3000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해 제주는 그냥 죽음의 섬이 된 셈이었다. 제주의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은 스스로 전복을 먹지 않을 만큼 제주 섬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했던 정조 때부터였다. 정조는 진상품의 숫자와 품종을 줄이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양태 산업에 대한 독점권을 제주에 주었다. 김만덕이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김만덕은 그냥 한양으로 가고 싶어서 한양으로 올라가 왕성을 보고 싶다고 소원한 것이 아니었다. 제주에서 태어난 이유로 제주 섬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제주 섬사람들의 한을 풀기 위한 처절한 요구였다. 자신의 신분을 면천하거나 경제활동에 도움될 만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주 섬사람들의 뼈저린 소망을 들어달라고 한 것이다.

금강산 관람 역시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양에 올라간 이후 좌의정 채제공을 만나면서 얘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록(정조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으로만 보면 제주목사 유사모가 1796년 6월 처음으로 김만덕의 진흙 공적을 정조에게 보고했고 정조는 소원대로 이뤄줄 것을 바로 명령했고 제주목사 유사모는 한양으로 가고 싶다는 김만덕의 소원대로 육지로 내보낸 후 7월 정조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좌의정 채제공이 김만덕이 한양에 올라와 왕성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날도 추운데 처소와 체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조에게 요청하고 정조는 선혜청에 체류비와 금강산 유람, 귀향까지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다. 다음날 정조는 김만덕에게 의녀 반수의 직을 내려 입궐하게끔 하고 대비와 중전과 함께 만나 칭찬하고 선물도 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초계 문신들에게 김만덕 스토리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김만덕의 이야기를 후대로 전해지게끔 했다. 제주 섬 사람들을 가둬놓았던 제주 출륙 금지령은 결국 김만덕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간 1796년으로부터 27년이 지난 1823년(순조24년) 2월24일 전면 해제됐다.

올해는 중앙정부가 제주 사람들을 섬에 가둬두었던 출륙 금지령을 해제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다. 옛 제주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육지 출입을 오늘의 제주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만덕은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서 남존여비, 사농공상의 유교적 신분 질서를 뛰어넘은 위인이다. 제주 사람들이 굶어죽기 직전 전 재산을 풀어 먹여 살렸던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삶을 기리고 전승하는 것은 후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2백 년 가까이 섬에 갇혀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절절한 한을 풀어주고자 했던 김만덕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꼭 기억해야 할 일이다.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Part. 2

은광연세 恩光衍世 테마 이야기

테마 1. 은혜:은휼 - 김만덕 이야기

김만덕을 기록한 사람들	36
김만덕 기념사업 법인 설립 20주년	42
쉬영갑서 1. 기획전시	46
- 제주 청년작가 10人10色 전시, 「Spring, Spring!」	

김만덕을 기록한 사람들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 추사 김정희는 제주로 유배 온 뒤, 김만덕의 3대손 김종주에게 편액 하나를 써 준다. 1840년 무렵, 추사가 제주에 왔을 때 김만덕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칭송하고 있었다. 추사는 최악의 흉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수많은 목숨을 구한 그녀의 선행을 귀히 여겨, 그 후손에게 직접 편액을 써준 것이다.

김만덕의 선행 이후, 정조는 왕명으로 신하들에게 김만덕에 대한 글을 지어올리라고 할 정도로 당시 김만덕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만큼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장안의 화제였던 김만덕은 한양과 금강산을 다녀간 이후에도, 추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김만덕이 사망한 이후에도 김만덕에 대한 기록은 이어졌다.

유재건(劉在建)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만덕(萬德)」



유재건(劉在建)의 「만덕(萬德)」은 유재건(劉在建)이 펴낸 조선 조의 중인·서리 등의 하층계급 출신으로 각 방면에서 뛰어난 308명의 인물들의 행적을 모은 전기집(傳記集)이다. 총 10권 3책으로 나누어지는데 1권은 학생(學行), 2권은 충효(忠孝), 3권은 지모(智謀), 4권은 열녀(烈女), 5권부터 7권까지는 문학(文學), 8권은 서화(書畵), 9권은 의학(醫學)과 잡예(雜藝), 10권은 승려(僧侶)와 도류(道流)의 순서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 중 전대인의 전기에 전이 실린 것은 채택하여 편집하고, 전이 없는 인물은 스스로 전을 지어 실었으므로 인용된 책이 52종에 달한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4권의 열녀편에 스물여덟 번째로 수록되었는데, 『번암집(樊巖集)』에서 재수록한 체제공의 「만덕전」과 『범곡기문(凡谷記聞)』¹⁾에서 인용한 기생 홍도(紅桃)가 만덕에 써 준 칠언 절구의 한시로 되어 있다.

만덕(萬德)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耽羅)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²⁾에 올렸다. 만덕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하였으나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이십 여 세 되었을 때 그 사정을 울며 관가에 하소연하니 관가에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고 다시금 양민으로 되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집에 거하면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1) 현재 전하지 않는다.

2) 기안(妓案) : 관아(官衙)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둔 책

【지은이】

유재건(劉在建). 1793(정조 17)~1880년(고종 17). 조선 말기의 학자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덕초(德初)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다.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의 후손이었으나 가세가 몰락해 서리계급이 됐다. 시문에 능하고 특히 전서(篆書)·해서(楷書)에 뛰어났다. 오랫동안 서리로 규장각에 근무하면서 『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찬하는 데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왕이 내리는 상을 여러 번 받았다. 고종(高宗) 때에는 벼슬이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고금영물근체(古今詠物近體)』, 『법어(法語)』, 『풍요삼선(風謠三選)』, 『겸산필기(兼山筆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등이 있다.

【해제】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은 유재건(劉在建)이 펴낸 조선 조의 중인·서리 등의 하층계급 출신으로 각 방면에서 뛰어난 308명의 인물들의 행적을 모은 전기집(傳記集)이다. 총 10권 3책으로 나누어지는데 1권은 학생(學行), 2권은 충효(忠孝), 3권은 지모(智謀), 4권은 열녀(烈女), 5권부터 7권까지는 문학(文學), 8권은 서화(書畵), 9권은 의학(醫學)과 잡예(雜藝), 10권은 승려(僧侶)와 도류(道流)의 순서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 중 전대인의 전기에 전이 실린 것은 채택하여 편집하고, 전이 없는 인물은 스스로 전을 지어 실었으므로 인용된 책이 52종에 달한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4권의 열녀편에 스물여덟 번째로 수록되었는데, 『번암집(樊巖集)』에서 재수록한 체제공의 「만덕전」과 『범곡기문(凡谷記聞)』¹⁾에서 인용한 기생 홍도(紅桃)가 만덕에 써 준 칠언 절구의 한시로 되어 있다.

재화를 늘리는 데에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거나 했다. 그런지 몇 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 높았다. 우리 임금³⁾ 19년 을묘년(乙卯年)⁴⁾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 리에 바람 편에 오가는 돛대가 북⁵⁾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부황(浮黃)⁶⁾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청마당에 모여 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緩急)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라고 했다. 진흙이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리니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하고 회유(回諭)⁷⁾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만덕은,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했다. 대개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함이 나라의 법이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올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하라하여 관가에서 노수(路需)⁸⁾와 역마(驛馬)⁹⁾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¹⁰⁾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丙辰年)¹¹⁾ 가을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蔡相國)¹²⁾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쭙어서 선혜청(宣惠廳)¹³⁾에 명령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런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 의녀(醫女)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¹⁴⁾에 두었다. 만덕은 이전에 있던 사례에 의하여 궁궐 안에 있는 문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¹⁵⁾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 한 개 여자로서 의기(義氣)¹⁶⁾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여 명을 구제했으니 가룩한 일이다.”

그리고 상사(賞賜)¹⁷⁾한 것이 많았다. 그런지 반년만인 정사년(丁巳年)¹⁸⁾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3) 우리 임금 : 정조
4) 을묘년(乙卯年) : 1795년
5) 북 : 배틀에서, 낚시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6) 부황(浮黃) : 오랫동안 굶주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7) 회유(回諭) : 회답하는 유지(諭旨)
8) 노수(路需) : 노자(路資)=여비
9) 역마(驛馬) : 조선 시대에, 각 역참에 갖추어 둔 말
10) 만경(萬頃) :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11) 병진년(丙辰年) : 1796년(정조 20)
12) 채상국(蔡相國) : 좌의정 체제공(蔡濟恭). ‘상국’은 영의정 및 좌·우의정의 총칭
13) 선혜청(宣惠廳) : 조선 시대에, 대동미와 대동목, 대동포 따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14) 반수(班首) : 우두머리
15) 여시(女侍) :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던 말
16) 의기(義氣) :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개
17) 상사(賞賜) : 칭찬하여 상으로 물품을 내려 줌
18) 정사년(丁巳年) : 1797년(정조 21)

만폭동(萬瀑洞)¹⁹⁾·중향성(衆香城)²⁰⁾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하였다. 금불(金佛)²¹⁾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스물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령(雁門嶺)²²⁾을 넘어서 유점사(楡岾寺)²³⁾를 거쳐 고성(高城)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²⁴⁾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²⁵⁾에 올라 천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구경을 한 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원(內院)²⁶⁾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벼슬이 높은 사람들과 선비들이 모두 한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²⁷⁾히 눈물을 흘렸다.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는 모두들 ‘해외에 삼신산(三神山)²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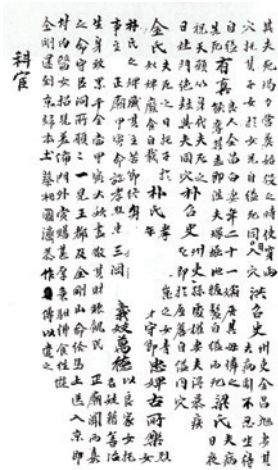
19) 만폭동(萬瀑洞) : 내금강에 있는 명승지.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으로 유명함
20) 중향성(衆香城) : 내금강의 영랑봉 동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하얀 바위 성
21) 금불(金佛) : 황금으로 만들거나 곁에 금빛 칠을 한 부처
22) 안문령(雁門嶺) :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오는 고개
23) 유점사(楡岾寺)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절. 금강 53불이 봉안되어 있음
24) 삼일포(三日浦)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
25) 총석정(叢石亭) :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정자. 관동 팔경의 하나로, 주위에 현무암으로 된 여러 개의 돌기둥이 바다 가운데에 솟아 있어 절경을 이룬다
26) 내원(內院) : 비빈(妃嬪)들이 거처하는 궁궐 안의 궁실(宮室)
27) 산연(潸然) :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모양
28) 삼신산(三神山) : 신선이 살고 있다는 세 산. 봉래산, 방장산(方丈山), 영주산
29) 여의행수(女醫行首) : = 행수의녀 = 의녀반수
30) 교방(敎坊) : 고려·조선 시대 기녀(妓女)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무(歌舞)를 관장하던 기관

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말하는 영주산(瀛洲山)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말하는 봉래산(蓬萊山)이 아닌가. 너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白鹿潭)의 물을 떠내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지금 이별에 임하여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보임은 어째서인가.”하고 위안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萬德傳)을 써서 웃으며 주었다. 『변암집(槓巖集)』

만덕이 서울에 왔을 때 기생 홍도(紅桃)가 다음과 같이 시를 주었다.

여의행수(女醫行首)²⁹⁾ 탐라 기녀가
만 리 물결에 바람 두려워하지 않았네.
또 금강산 깊은 곳 향해 가니
향기로운 이름 교방(敎坊)³⁰⁾에 남으리.
『범곡기문(凡谷記聞)』

이원조(李源祚)『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권2「의기만덕(義妓萬德)」



【지은이】

이원조(李源祚). 1792(정조 16)~1872년(고종 8).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본관은 성산(星山)이고, 초명은 영조(永祚)이며, 자는 주현(周賢), 호는 취송(鷗松)·나고(懶高)·호우(毫宇)·응와(凝窩)·만귀산인(晩歸山人) 등이다. 1809년(순조 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7년(헌종 3) 정언³¹⁾으로서 기강이 문란하여져 사족(士族)³²⁾들의 사치가 극도로 달하여 민중들의 간고³³⁾함이 형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쇄신책을 실시할 것을 간하였다. 그 후 1850년(철종 1) 경상도의 경주부윤에 오르고, 1854년 대사간에 이어 공조판서를 지냈다. 1841년(헌종 7년) 정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신축년 가을에 흉년으로 제주에 기근이 들자 호남의 연읍(沿邑)³⁴⁾의 창고 쌀 2,500섬을 요청하여 실어온 뒤 굶주리는 제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임 기간 동안 우도와 가파도에 들어가 밭으로 갈아먹도록 허가를 내려 주면서 세금을 사복시(司僕寺)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동계(鄭桐溪) 적려유허비(謫廬遺墟碑)'를 세우고 향현사(鄉賢祠)를 굴림서원 곁에 세워 고득중(高得宗)을 제사하도록 하였다.『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을 편찬하였다.

【해제】

『탐라지초본』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있을 때 편찬한 책으로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다. 권1에는 건치연혁(建置沿革)·읍호고증(邑號攷證)·산천·도서(島嶼)·물산·토속·관직·씨족·방리(坊里)·호구(戶口)·도로·교량·성지(城池)·단묘(壇廟)·학교, 권2에는 공해(公廩)·누관(樓觀)·진보(鎭堡)·봉수(烽燧)·목양(牧養)·과원(果園)·공헌(貢獻)·전결(田結)·대동(大同)·봉름(俸廩)·요역(徭役)·조적(糶糴)·창고·군액(軍額)·노비·공장(工匠)·인물·과환(科宦)·형승·제영(題詠)·고적(古蹟), 권3에는 제주로 기문(奇聞)·변정(邊情)·전수(戰守)·이선(異船)·표류(漂流)·구례(舊禮)·은흥(恩恤)·조진(調賑)·견탕(鰓蕩)·은전(恩典)·관안(官案)·판관(判官), 권4에는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으로 나누어서 각기 건치연혁·산천·도서·물산·토속·씨족·방리·호구·도로·교량·성지·단묘·학교·공해·누관·진보·봉수·목양·과원·공헌·전결·대동·봉름·요역·조적·창고·군액·노비·인물·과환·형승·고적·관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중 만덕에 대한 기록은 권2 인물편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만덕의 행적이다.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 딸로서 기적(妓籍)에 올랐는데, 생신(生身)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甲寅年)³⁵⁾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³⁶⁾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도(王都)³⁷⁾와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로 도착하자 내의녀(內醫女)로 삼아 차비문(差備門)³⁸⁾ 밖에서 친히 보시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도로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³⁹⁾로 돌아 왔다. 상국(相國)9)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주었다.

31) 정언(正言) : 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

32) 사족(士族) :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33) 간고(艱苦) :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34) 연읍(沿邑) : 도로의 연변에 있는 읍

35) 갑인년(甲寅年) : 1794년(정조 19)

36) 진휼(賑恤) :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

37) 왕도(王都) : 왕궁이 있는 도시

38) 차비문(差備門) : 궁궐 정전(正殿)의 앞문과 종묘의 상문·하문·앞전·뒷전을 통틀어 이르는 말

39) 본토(本土) : 태어나 자란 곳. 여기서는 제주인 ‘탐라’를 말할

미상『탐라지(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권1「의기만덕(義妓萬德)」



【해제】

지은이 미상의 일본 도쿄대학 소장본 『탐라지』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록조(先生錄條)에 이의식(李宜植) 목사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체임(遞任)⁴⁰⁾ 시기인 1848년(헌종 14) 3월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1의 인물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탐라지초본』과 거의 일치한다.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의 딸로서 기적(妓籍)에 올랐는데, 생신(生身)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甲寅年)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도(王都)와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에 도착하자 내의녀(內醫女)로 삼아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친히 보시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로 돌아왔다. 상국(相國)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주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초등사회교과서 中 김만덕 내용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근현대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기록되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담수계가 펴낸 『증보탐라지』, 진성기의 『남국의 전설』 등 여러 향토사학자들의 기록들이 전 해지며 현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김만덕을 만나볼 수 있다.

40) 체임(遞任) : 벼슬을 갈아 낸

김만덕 기념사업 법인 설립 20주년 은광연세(恩光衍世)를 따르다

곽민

김만덕기념관 운영팀장

굵주림으로 아사에 직면한 제주도민을 살린 김만덕은 ‘만덕할망’으로 불리며 마치 설화속의 인물처럼 기억될 뻔했었지만, 현명한 제주도민들은 김만덕과 그 정신을 실체적 역사로, 주요한 인문유산으로 제주도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시대정신으로 바르게 세워냈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기념하는 사업은 1971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김만덕의 묘가 70니무루(제주시 화북동 일대)에 있었는데, 일대가 개발되면서 묘 앞으로 집들이 들어서고, 자동차 정비공장이 생겨 폐기물이 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뜻있는 제주의 명망가들이 1971년 10월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김만덕전(김태능 저)을 발간하고, 김만덕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을 추진했다.

당시 <김만덕기념사업회> 임원으로 명예회장 이승택, 고문 현오봉·홍병철, 박충훈, 회장은 홍정표, 부회장은 고혜영·양치중·양중해, 총무이사 김성춘, 재무이사 정태무, 사업이사 고영은, 기획이사 현용준·김영돈·김봉옥, 섭외이사 강대원·홍성목·신상범, 이사 백찬석·강민범·김명신·조병직·최순신·이정숙·강염숙, 감사에는 이재봉·송석범이 선임되어 활동했다.

몇 해 동안 이장을 추진하던 중 1976년 10월, 제주시 사라봉에 모충사가 준공되자 1971년 1월 3일 김만덕의 묘를 이장하고 <김만덕기념사업회>는 해산되었다.



만덕관 전경



표준영정 봉안(2010.10.01)

1978년, 제주시가 모충사 경내에 ‘관리사’를 짓고 민속유물을 전시하는 자료관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수립원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전통 수예의 발굴과 발전, 교육을 위해 애써온 한상수(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 씨가 발 벗고 나섰다. 자신이 수집한 각종 의상과 민속품 등을 대여해주면서 ‘만덕관’을 조성해 같은 해 7월, ‘만덕관 개관 및 김만덕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홍상문화백이 제작한 ‘김만덕 영정’도 이때 봉헌되었다.

한편, 1980년 1회 만덕봉사상으로 시작한 김만덕상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에 따라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봉사 부문과 경제인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44회, 57명이 수상했다.

1978년 이후 한상수 씨를 중심으로 김만덕에 대한 기념사업의 명맥이 이어졌으나 개인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 1995년 11월 25일, ‘제2회 의녀반수 김만덕 기념 자선의 밤’을 개최해 기념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김만덕기념사업회 발족 및 만덕동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00년 9월 25일, 도내외의 제주 출신 여성으로 150명의 발기인을 모집해 ‘<의녀반수 김만덕기념사업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기념사업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발기인대회에서는 고문 양중해·고봉식·김윤기·문기선·홍순만·이옥이, 공동대표 김경생·고두심·고앵자·한상수, 추진위원 고계춘·고길향·강정희·강의봉·강승원·김정삼·김정자·김정자·김청신·김문자·김화옥·김미자·김이

자·변정자·백미숙·임수옥·임기옥·양영자·오숙자·양의숙·이명순·황옥선·현명순·김신행·신순량 이 선출되었다. ‘제주시에 만덕동산을 조성하여 성실, 근면, 아름다운 덕행을 삶의 기본이념으로 뿌리를 둔 제주탐라의 여성상을 영원히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고 교육적 가치로 승화시켜 여성 문화권을 형성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제시하고 활동을 펼쳤다.

2003년 11월 15일,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가 발기인 총회를 통해 창립되었다. 이듬해인 2004년 2월 25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최초로 김만덕 기념사업의 활동이 법인형태로 시작되었다. 상임대표 강재업, 공동대표 송동효·고앵자·부청자·고두심, 이사 고길향·고우방·고추월·김명만·김명신·김문자·김은석·김정자·문영자·문영찬·백미숙·부청자·부평국·서석주·손영주·송창우·양순강·양영자·양원찬·양의숙·오경생·오경애·오순자·오순정·오정희·이연봉·이용희·전귀연·진찬송·한대삼·홍영선 등이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에 나섰다.



김만덕기념사업회 사무실 개소식(2006.09.15.)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전국 학술 세미나 ‘김만덕의 시대와 현실’, 국회 토론회 ‘김만덕과 파워여성’ 등 김만덕에 대한 학술연구사업이 활발히 이어졌고, 2007년 1월 18일 ‘김만덕자료총서Ⅰ 은광연세(恩光衍世)’가 발간되었다. 자료총서는 이후 2008년 ‘자료총서Ⅱ’, 2013년 ‘자료총서Ⅲ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으로 이어졌다. 1월 24일에는 김만덕 묘비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4호’로 지정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상임대표 강재업, 공동대표 고두·심송창우·김문자·전귀연, 이사 강동현·강정애·고우방·고추월·김명만·김미자·김원치·김은석·김정자·김진영·문영자·문영찬·백명운·백미숙·부평국·서석주·손영주·양기훈·양성익·양원찬·양의숙·오경생·오경애·오순자·오순정·오정희·이근숙·이연봉·진찬송·차여준·한대삼 등이 활발히 활동을 펼치며 김만덕과 김만덕 기념사업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2007년 제주에서 개최된 ‘김만덕 나눔쌀 천 섬 쌓기’를 통해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고, 2009년 10월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

만덕 나눔쌀 만 섬 쌓기’를 개최해 기부금품 30여억 원을 모금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이듬해인 2010년 3월 ‘거상 김만덕’ 드라마(KBS1) 방영, 7월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지정(제82호), 9월에는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의 경제·사회·역사 등을 대표하는 인물 100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로 김만덕 메달을 제작했고, 김만덕에 대한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으로 이어져 김만덕을 전국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5월, 김만덕의 오빠 김만석의 6대손인 김균 씨가 가보로 소장해 온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의 선행을 기려 쓴 ‘은광연세(恩光衍世)’ 친필 편액을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 김만덕 기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도지사 후보들에게 ‘김만덕기념관 건립’에 관한 정책제안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념사업은 해외로 향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에 김만덕과 제주의 이름을 새긴 빈푸만덕중학교(푸토성 비엠티시)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칸호아성 캄란현)를 건립해 기부했고, 남수단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몽골과 캄보디아의 빈곤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성장 발달지원 체



2007년 나눔쌀 천 섬 쌓기



2009년 나눔쌀 만 섬 쌓기



베트남 만덕학교-칸호아제주초등학교 지원사업



은광연세 편액 기증(2010.05.01.) *출처:제주의소리



김만덕기념관 개관(2015.05.29)

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2012년 12월, 서울광장에서 다시 한번 ‘김만덕 나눔쌀 만 섬 쌓기’를 개최해 12억 원을 모금해 2013년까지 국내외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을 펼쳤다.

2015년 5월 29일, 마침내 김만덕기념관(1층 국립박물관)이 개관했다.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는 김만덕기념관 민간 위탁기관 공모에 신청하여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만덕기념관은 학술·연구사업, 전시, 나눔교육, 체험 프로그램, 김만덕주간(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주간행사) 운영, 나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만덕 기념사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임대표 고두심, 공동대표 양원찬·김문자·문영자, 이사 강기호·강동원·강성진·강은희·강정애·강희중·고광훈·고우방·고정신·고추월·고홍철·곽경직·김경애·김귀진·김동선·김동익·김동전·김명두·김명준·김미혜·김상훈·김진영·김은석·김정임·김창희·김현숙·문봉희·변민수·부상돈·부평국·서석주·서영선·손영주·송귀순·송영배·신찬성·양시진·양영철·양의숙·양인석·양인수·양종훈·오경생·오경애·오영희·오수용·오순자·오정희·윤순환·이경희·이동휘·이석창·이은희·임애덕·장효순·정군태·한대삼·한철호·허영선·현만식·현성욱·현왕수·현정자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2019년,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는 김만덕 기념사업의 도약과 질적 전환을 위해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10월 20일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양원찬, 부이사장 문영자, 이사 김문자·양의숙·고두심·김상훈·김창희·양인수·현정자·현성욱·김현숙·한철호·조영숙·강은희·고광훈·부경돈, 감사 문영찬(2023년 현재 김태훈)·한대삼을 선출하고 출범했다. 이듬해인 2020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의 기념사업이 시작되었다.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세계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김만덕 국제상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 청년작가 10人10色 전시, 「Spring, Spring!」



전시실 전경

김만덕기념관에서는 2023년 첫 기획 전시로 2023년 3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청년작가전 「Spring, Spring!」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봄날(spring)의 생기를 담고 용수철(spring)과 같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청년작가 10인의 작품이 선보여 전시 오프닝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봄날의 생기 가득한 청년작가들의 시선을 봄!



사라져가는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기록하는 **고혜령**
바닷속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김남훈**
재난 속에서도 삶은 끝나지 않음을 표현하는 **김승민**

소비에 관한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는 **김승주**
현상에 대한 관찰을 공유하는 **김원재**
작품을 통해 여유로움과 편안한 마음을 선사하는 **박민서**

변화 속 움직임에 가치를 두며 과정을 그려나가는 **오지우**
'관계'와 '나만의 공간'이 주는 위로를 표현하는 **현솔림**
혼란스러운 생각과 고찰을 작품에 담아내는 **황준용**
숨기지 않고 자신을 그리고자 하는 **황희정**

“ 이번 전시가
봄날(spring)의
생기를 담고
용수철(spring)과 같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청년작가들에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은광연세

Part. 2

은광연세 은광衍世 테마 이야기

테마 2. 빛:광光 - 김만덕주간

사진으로 본 김만덕주간	50
모두가 행복한 나눔, 만덕 할망과 함께 해요	62
제44회 만덕제 봉행	64
제44회 김만덕상 시상식 - 변명효, 문영옥 김만덕상 수상	70
나눔큰잔치	72
행사스케치	78
쉬엄잡서 2. 기획전시 - 2023 김만덕기념관 개관 8주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기억을 걷다」	80

만덕 할머니를 추모하고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만덕제 봉행



도내 주요 4개 나눔기관이 함께 나누는 제주

공동나눔사업



김만덕재단이 이어가는 만덕 할머니의 나눔 정신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도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기는 나눔 한마당

나눔큰잔치



그리고... 제주에 울려퍼지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김만덕의 노래



모두가 행복한 나눔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제7회 김만덕주간



모두가 행복한 나눔, 만덕 할망과 함께 해요



의인 김만덕을 기리는 주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번 김만덕주간 행사는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내 김만덕 묘탑과 탑동광장 등 도내 일원에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졌으며, 첫날인 10월 22일에는 제44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과 나눔 큰잔치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배우 문희경과 함께하는 나눔 올레 걷기 행사를 진행했고, 26일에는 나눔 나이트런을 개최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김만덕 역사탐방 버스타고 GOGO를 진행하여 김만덕의 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나눔의 기쁨이
한 가득!
사진으로 본
김만덕주간



배우 문희경과 함께하는 나눔 올레 걷기



나눔 나이트 런



버스타고 GOGO



의녀반수 김만덕을 추모하고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며



사라봉 모충사에서 차비대령(差備待令)인 행수의녀(行首醫女) 김만덕을 기리는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MBC TV 생방송으로 진행



‘제44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22일 오전 10시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내 김만덕 묘탑에서 열렸다. 올해로 44회를 맞이한 만덕제는 의녀반수 김만덕을 추모하고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0년부터 김만덕 시상식과 함께 이어져 왔다.

만덕제에서는 여성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여성 12명이 제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봉향, 대축, 찬자, 봉작, 사준, 전작, 봉노, 집례, 찬인)을 맡는다.





올해 제관은 제43회 김만덕상 봉사 부문 정정숙 수상자가 초헌관으로, 아헌관은 김해김씨좌 정승공파종친회부녀회 홍옥희, 중헌관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선영 회장, 봉향은 구좌읍새마을부녀회 김희정 회장, 대축은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애 회장, 찬자는 (사)고향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진범 회장, 봉작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옥화 회장, 사준은 사회적기업 일배움터 오영순 대표, 전작은 제주스타트업협회 김지운 부회장, 봉노는 청솔적십자봉사회 김인행 회장, 집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양은주 이사, 찬인은 제주은행영업추진본부 이지희 수석이 맡았다.



12명의 여성 제관들이 봉행한 만덕제는 헌화와 분향, 제례봉행, 분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배우자인 박선희 여사를 비롯해 (재)김만덕재단, 김해김씨 종친회, 각 기관 단체장 및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만덕제 봉행은 의녀반수 김만덕을 추모하고
나눔과 베풀 정신을 널리 알려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변명효, 문영옥 김만덕상 수상

만덕제 봉행에 이어 진행된 김만덕상 시상식은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김만덕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이후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의 김만덕 일대기 낭독, 김만덕상 연혁과 2023년 수상자 공적보고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수상자들과의 기념 촬영과 배우 문희경 씨의 축하공연으로 제44회 김만덕상 시상식이 마무리되었다.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는 봉사 부문에서 변명효 씨(66가), 경제인 부문에는 문영옥 씨(57가)가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올해 수상자들에게 김만덕상을 수여했다.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김만덕의 노래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의 김만덕 일대기 낭독



뮤지컬 '만덕'에 출연했던 배우 문희경 씨의 축하공연

봉사 부문



변명효

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변명효 씨는 1994년부터 29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들에게 나눔과 배움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1994년 무료 간병 봉사를 시작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물품과 후원금 지원 활동을 지속 해왔으며, 2002년 한울간병봉사회를 창단한 이후 현재까지 제주의료원 등에서 무료 간병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매주 노인 전문병원과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위생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 목욕 및 말벗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관광 도움,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 레크레이션, 중식 봉사, 제주국제공항친절서비스 등의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경제인 부문



문영옥

경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문영옥 씨는 서귀포시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03년부터 삼성여자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등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모범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2010년 나너우리 봉사단을 창단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선희 여사, 올해 수상자들에게 김만덕상 수여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과 봉행 제관과 함께 기념촬영



“개막식부터 부대행사까지, 나눔의 기쁨 함께 누려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포문 열어

10월 22일 제44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에 이어 오후 1시 30분에 탑동광장에서 ‘나눔큰잔치’가 개막했다. ‘나눔큰잔치’는 탑동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나눔, 체험 행사와 무대 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나눔의 가치를 함께 공유했다.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건입동 농악대의 길트리 공연, 나눔큰잔치 흥 더해

제44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에 이어, 오후 1시 30분에 탑동광장에서 ‘나눔큰잔치’가 개막했다. 건입동 농악대의 길트리 공연과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하여 나눔큰잔치를 열었다.



건입동 농악대의 길트리 공연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10톤 전달

나눔큰잔치 개막행사에서는 김만덕주간을 맞아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10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기부된 쌀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



도내 주요 4개 나눔기관이 공동나눔사업 시작 알리

김만덕주간을 맞아 김만덕재단과 대한적십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등 도내 주요 4개 나눔기관이 공동나눔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김만덕재단과 대한적십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나눔사업 시작을 알렸다.



다양한 부대행사로 도민과 함께 한 나눔큰잔치

개막식과 함께 김만덕 보물찾기, 마술 및 버블쇼, 어린이 나눔장터,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과 사우스카니발의 축하공연, 플리마켓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개막식 부대행사에서 마술 및 버블쇼에 환호하는 어린이들



강영진 김만덕기념관 관장과 함께하는 김만덕 보물찾기. 보물을 찾은 어린이에게는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10kg)이 전달되었다.



음식 나눔으로는 솜사탕, 튀밥, 커피 만들기, 체험으로는 동백키링, 바람개비, 청굴떡 등이 있었으며, 재능 나눔으로는 도토리 캐리커처가 진행되었다.



달콤한 나눔, 솜사탕 나눔



다양한 체험 행사들



물품 나눔으로는 나눔도서관, 풍선, 오롤리데이 문구 등을 운영했다. 이번 나눔큰잔치에서는 다양한 나눔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나눔큰잔치를 마무리했다.



김만덕 나눔도서관



1분 도토리 캐리커처



나눔 올레 걷기부터 역사탐방까지, 김만덕주간 행사들

제7회 김만덕주간을 맞이하여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김만덕재단과 김만덕기념관은 10톤의 사랑의 쌀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탁했다. 그리고 김만덕주간 동안 따뜻한 기부행렬은 계속 이어졌다. 제주은행과 제주농협, 심상철 (주)원창이앤씨 대표, 윤진호 윤진호정형외과 원장, 김만덕상수상자회, 국제소롭티미스트제주클럽, 탐모라로타리클럽이 나눔에 동참했다.

기탁된 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개별가구에 직접 배분되었다. 또한, 주간 행사로 열린 ‘배우 문희경과 함께 하는 나눔 올레 걷기’와 ‘나눔나이트런’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기부금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식료품지원사업에 사용되었다.

7회 김만덕주간 배우 문희경과 함께하는 나눔 올레 걷기



배우 문희경 씨와 강영진 김만덕기념관 관장



참가자들이 올레 18코스를 따라 걷고 있다.



올레 걷기와 함께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10월 23일에 월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김만덕기념관부터 삼양해변까지 올레 18코스 10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플로깅(Plogging)을 진행했다. 제주올레에서 나온 길동무의 동행하에 안전하게 진행했으며, 중간 휴식지에서는 문희경 배우의 노래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귀한 규래차를 제공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올레 18코스를 완주하여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제7회 김만덕주간 나눔 나이트런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김만덕기념관에서 출발해 산지등대 모퉁이를 지나 돌아오는 5KM 코스의 나이트런을 진행했다. 참가비는 이웃을 위한 기부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나이트런 행사는 NRC 러닝크루의 인솔 하에 안전하게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맥파이에서 제공하는 맥주 한잔으로 완벽하게 나이트런을 마무리했다.

제7회 김만덕주간 역사탐방 버스타고 GOGO



올해 김만덕주간의 마지막 행사로, 10월 28일 토요일에는 10시와 14시에 걸쳐 역사탐방 버스타고 GOGO를 진행했다. 해설사님의 설명과 함께 김만덕기념관에서 출발하여 금산공원, 김만덕 객주, 동자복을 돌아보고 버스를 타고 관덕정으로 이동했다. 관덕정과 목관아를 돌아보고, 관덕정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모퉁사로 이동하여 김만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행사는 해설사님의 열정적인 해설과 함께 깜짝 퀴즈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여 행사의 재미를 더했다.

역사·생활·기억 속의 산지천, 「산지천:기억을 걷다」



전시실 전경

김만덕기념관에서는 2023년 개관 8주년을 맞이하여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기억을 걷다」가 열렸다.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대표 고경대)과 공동 기획한 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문화원, 제주학연구센터, 사진작가 서재철,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등 도내 여러 기관의 협조로 흩어져있던 산지천의 자료를 한데 모아 선보여, 김만덕의 열이 살아 숨쉬는 산지천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속의 산지천

조선시대 탐라순력도에 담긴 산지천의 모습부터 19세기 말의 산지향의 모습, 1927년 대홍수, 1966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산지천 상가 복개와 복원 등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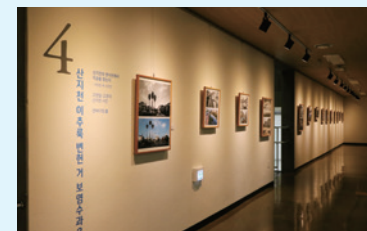
생활 속의 산지천

제주와 육지를 잇는 관문이자 주민들의 식수원, 목욕과 빨래를 하는 생활의 터전이었던 산지천과 동문로터리, 제주항(동부두, 서부두)의 옛 모습들이 전시되었다.



기억 속의 산지천

김익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임태호(전제주산업정보대학 학장), 김석윤(건축가), 고성철(문화관광해설사), 서재철(사진작가), 고미선 등 산지천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한 기록들을 영상과 텍스트로 남겼다.



산지천, 이추록 변한 거 보였수과?

아버지故고영일 작가가 남긴 과거 제주의 모습과 그것을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사진에 담은 아들 고경대 작가의 작업을 보여주는 '사진전 속 사진전'을 선보였다.

“앞으로도 김만덕기념관은 전시기획, 학술연구 등을 통해 산지천에 대한 많은 기억과 자료들을 알려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문화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은광연세

Part. 2

은광연세 恩光衍世 테마 이야기

Tyche, Gamunjang-Agi, and Kim Man-duk

The Power of Giving

Kim Man-duk, whom we honour at this forum, embodied these goddess-like qualities. She was, in today's terms, a smart and successful businesswoman who overcame personal adversity to become what we would regard as Korea's first CEO. When famine struck, her choices to spend much of her personal wealth to import and freely distribute food, have become a powerful symbol of generosity and philanthropy.

Despite the many personal obstacles they faced, Tyche, Gamunjang-Agi, and the legendary Kim Man-duk, all recognised their self-worth and ability to achieve through the power of giving.

테마3. 넓은:연衍 - 김만덕의 정신

출장기행문

- 의암별제 참관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84

94

의암별제 참관기

김세영

김만덕기념관 학예사



의암별제 봉행 장면(출처 : 진주시청)

2023년 5월 6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주성 축석루에서는 의기 논개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의암별제(義巖別祭)'가 봉행되었다.

제례(祭禮)란 제사를 지내는 의례(儀禮)를 말한다. 예로부터 전통적인 제례는 유교적 영향으로 남성들만 참여하는 남성 중심의 행사였다.

하지만 그중에는 여성들만 제관으로 참여하는 제례 의식도 있는데, 제주의 만덕제와 진주의 의암별제가 그 예다.



만덕제 봉행 장면

제주의 만덕제는 의인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부터 거행된 제례이다. 김만덕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재단 주최, 김만덕기념관 주관하에 매년 김만덕의 기일(10월 22일)에 가까운 일요일, 사라봉 모충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진주의 의암별제는 논개(논개(論介, ?~1593)를 기리는 제례로, 진주 교방의 기생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진주 지역만의 독특한 제례 의식이다. 일

제강점기 당시 중단되었다가 1992년 복원되어 현재까지 봉행 되고 있고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 제관이 봉행한다는 점에서 만덕제와 의암별제는 비슷하다. 하지만 무엇이 다르기에 의암별제는 '별제(別祭)'로 칭해지고 무형문화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진주로 찾아갔다.



진주 논개제가 열리는 진주성(북공문)

올해 열리는 22회 진주 논개제는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5월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비행기 결항과 지연을 뚫고 5월 6일, 어렵사리 찾은 진주성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아 제례 장소가 특설 무대에서 축석루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히려 역사 속 고증대로 축석루에서의 의암별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암별제 봉행 전, 사전행사로 축석루 옆에 있는 ‘임진대첩계사순의단’에서 헌다례(獻茶禮)가 봉행 되었다. 헌다례는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논개와 7만 민·관·군의 넋을 기리는 의식이다. 분향을 하고, 고유문을 낭독하고 차를 올린다. 그 후에는 춤(獻舞)과 노래(獻唱)를 바친다.



임진대첩계사순의단에서 진행된 헌다례(출처 : 진주시청)

헌다례가 끝나면 의기사(義妓祠)에서 제단으로 신위를 모셔오는 신위 순행이 있다고 하는데 비가 그치지 않아 생략된 듯했다.

의암별제에는 삼헌관과 집사, 헌악관(獻樂官), 헌창관(獻唱官), 헌무관(獻舞官)이 참여한다. 헌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관은 대축, 당상집례, 당하집례, 알자, 찬인, 전사관, 사준, 전작, 봉작, 봉향, 봉로, 조축 2명과 행장보고를 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악관은 제례를 봉행할 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협률랑, 악장, 장고, 좌고, 아쟁, 당상악관과 당하악관으로 나뉘는 대금, 해금, 피리로 구성되어 있다. 헌창관은 제례를 봉행할 때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7명이 있고, 헌무관은 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12인이 참여한다.



진주논개제 개제식 장면

‘진주 논개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암별제는 개제식과 함께 진행된다. 올해 진주 논개제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해, 세계역도연맹 회장 등 외국인 내빈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개제식이 끝나고 의암별제가 봉행되기 전, 논개의 충절과 의암별제에 대해 소개하는 행장보고를 한다.

지금으로부터 430여 년 전인 선조 25년, 왜적은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때 진주성에서는 2번의 큰 전투가 있었다.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800명의 군사들이 일본군 2만 명을 물리쳤고, 크게 패한 왜적은 다음 해인 계사년 6월, 진주성을 재차 공격해 왔다.

이러한 왜적의 움직임에 진주성이 위급하다는 소

식을 접한 창의사 김천일, 충청 병사 황진, 경상우 병사 최경회 등이 진주성으로 집결하여 대항하였지만 끝내 성은 함락되고 7만 민·관·군이 순국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장들이 축석루에서 승리의 자축연을 열고 있을 때 논개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곁에 단장하고 축석루 아래 강 가운데 바위에 서서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유혹하여 푸른 물속으로 뛰어들어 순국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진주 백성 사이에서 구전되어오다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수록되었고, 진주 선비 정대룡에 의해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義巖)’이라는 글이 전각 되어 역사적 사실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종 2년, 진주 백성들은 명암 정식 선생이 지은 비문으로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웠

고 영조 16년에는 논개의 제향을 올리는 사당인 ‘의기사(義妓詞)’가 창건되었다. 고종 5년 진주목사 정현석은 의기 논개의 충렬을 더욱 높이 기리며 의암별제를 특설, 진주의 기생들을 중심으로 매년 6월 중 길일을 택하여 봉행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국권이 상실되면서 중단되었던 의암별제는 광복 후 진주 권번 출신들이 만든 ‘의기창렬회’라는 단체를 통해 의기사에서 논개에 대한 제사만 지내오다가 1992년 진주검무 예능 보유자인 성계옥 선생이 1872년 진주목사 정현석이 저술한 『교방가요』의 기록을 토대로 복원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는 논개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7만 민·관·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진주시에서 ‘진주 논개제’라는 이름으로 지역 예술

축제를 개최하였고 의암별제는 진주 논개제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었다.

행장보고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축석루 밝은 달이 논낭자(논개)의 넋이로다. 향국(向國)한 일편단심 천만년에 비취오니 아마도 여중충의(女中忠義)는 이뿐인가 하노라.’ 오늘 논개님의 순국 430주년을 맞이하여 단순한 유교식 제의가 아닌 높은 예술성으로 표출된 의암별제가 깊이 뿌리내릴 것을 기원하며 의기 논개님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이상으로 행장보고를 마칠겠습니다.”

행장보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상 집례와 당하 집례의 홀기(笏記)에 따라 의암별제 제례가 진행된다.

의암별제 봉행 장면(출처 : 진주시청)



영신례(迎神禮)

영신례는 논개의 신위를 모시고 논개의 혼을 맞이하는 절차이다. 영신악이 연주되고 초헌관을 비롯한 모든 헌관과 제관들이 재배(再拜)하고 각자의 자리에 위치한다. 헌무관들은 음악에 맞춰 영신무를 춘다.

상향례(上香禮)

상향례에서는 초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신주 앞에 폐백을 드린다. 상향례부터는 헌창관들이 노래를 부르고 헌무관들은 상향무를 춘다.

초헌례(初獻禮)

초헌례는 초헌관이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헌악관은 초헌악을 연주하고 헌무관들은 초헌무를 춘다. 초헌례에서는 대축이 축문을 낭독하는데, 축문의 내용은 임진년 논개의 의로운 죽음과 충절에 대한 치사로 이루어져 있다.

아헌례(亞獻禮)

아헌례는 아헌관이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마찬가지로 아헌악과 아헌무에 맞추어 진행된다.

종헌례(終獻禮)

종헌례는 종헌관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역시 종헌악과 종헌무에 맞춰 진행된다, 종헌관이 신위에 술을 올리면 나머지 헌관들은 사배(四拜)한다.

헌상(獻上) 진주검무

의기 논개에게 음식과 향을 올리는 것과 같이 최고의 예로 진주검무를 헌무한다. 진주검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로 각종 애국 행사에 헌무로 올려진다고 한다.

사신례(辭神禮)

논개의 영혼을 보내드리는 분향 의식이다. 사신례부터는 <의암별곡>이 연주되고 참석했던 내빈들이 논개의 제단에 분향한다.

음복례(飮福禮)

제례에 올렸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다. 『교방가요敎坊歌謠』에 따르면 “음악이 연주되면 제관 이하 모든 참반한 모든 기녀가 춤을 춘다. 음악이 그치면 제기를 거두고 헌관 이하 모든 집사는 절하고 나간다. 제사를 마치면 제사음식을 나누어준다.”라고 한다.



의암별제 봉행 장면(진주검무 헌상)

의암별제의 모든 의례가 끝나고 나면 여흥 잔치가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현재도 의암별제를 봉행하고 3일 동안 진주 논개제 축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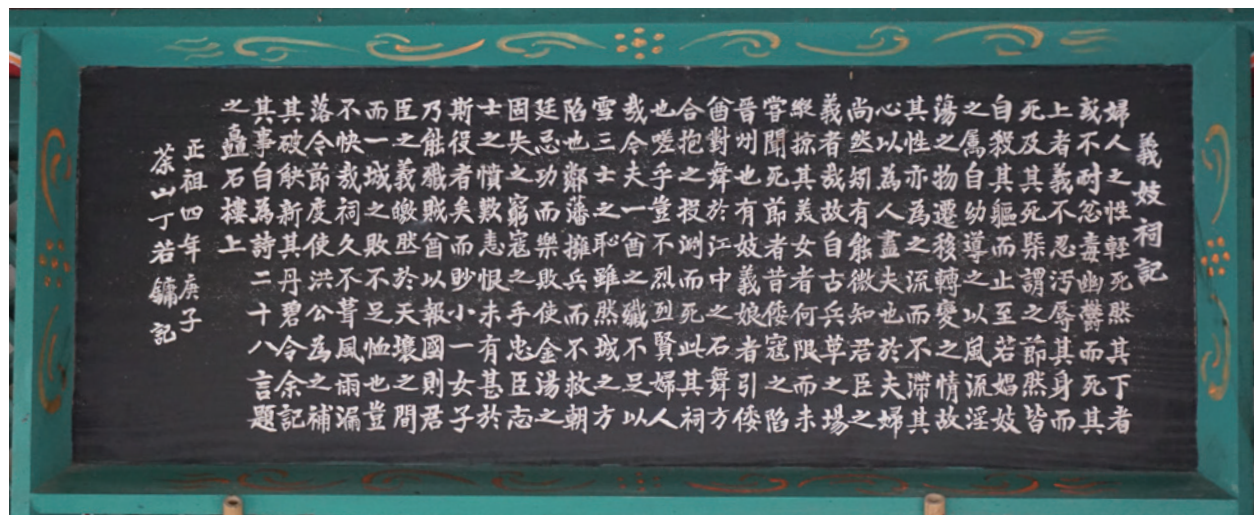
의암별제 봉행 다음 날, 논개를 모신 사당인 의기사(義妓祠)를 찾았다. 축석루 옆 의암 바위는 날씨 때문에 입장이 제한되어 갈 수 없었다.

의기사는 영조 16년(1740)에 경상우병사 남덕하가 처음 세운 뒤 수차례 중건이 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56년 진주 의기창렬회에서 시민의 성금으로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의기사 사당 안에 모셔진 논개의 영정은 처음에는 김은호의 작품이 모셔져 있었으나 화가의 친일 행적으로 철거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2007년 표준영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가표준영정

제79호로 지정받은 영정이 모셔져 있다.

사당 건물에는 다산 정약용의 의기사기문(義妓祠記文)이 걸려 있었다. 의기사가 창건된 지 40년 후인 1799년, 진주 병사 홍화보(洪和輔)에 의해 한 차례 중수되었는데 이때 홍화보의 사위인 다산 정약용이 의기사의 기문을 부탁받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기사에 걸린 정약용의 '의기사기문'

‘임진왜란 때 왜적의 우두머리가 진주를 공격하여 무너뜨렸을 때 의로운 남자가 있어서 그 왜장을 이끌고 강 가운데 돌에 가서 마주 춤을 추다가 바야흐로 춤사위가 합쳐질 때 끌어안고 깊은 곳에 몸을 던져 죽으니 여기서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아, 슬프다! 어찌 불꽃처럼 활활 타오른 현숙한 부인이 아니더냐, 이제 무릇 한 우두머리를 죽여서 죽히 세 분 씩씩한 선비의 치욕을 씻지는 못했으나, 성(城)이 바야흐로 적의 공격에 무너질 적에 이웃의 군사 요지에서는 병사들을 갖추고도

웅크린 채 구원하려 하지도 않았고 조정에서도 꺼려서 기꺼이 패하여 쇠붙이를 녹여 굳어진 것만큼이나 단단한 곳을 궁한 도적 떼의 손이 잃으니 충신과 지사(志士)들의 분노와 한스러움이 심히 형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그마한 한 여자가 능히 적의 우두머리를 죽여서 나라에 보답하고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환하게 되어 성 하나쯤 패한 것으로는 죽히 근심할 것 없으니 어찌 통쾌하지 아니하랴.’



의기사에 걸린 정약용의 '의기사기문'

이 외에도 『매천야록』의 저자인 황현의 시와 대한 제국시기 진주의 기생 산홍이 쓴 시 현판이 걸려 있다. 비록 작은 사당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이 왕으로부터 사당을 받은 것은 논개가 유일하다고 하다.

논개를 기리는 제사인 의암별제는 여성(기녀)이 제관을 맡았다는 점 외에는 모두 유교의 제례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예악을 중시하던 조선 시대에 제사에 가(歌)·무(舞)·악(樂)을 올리는 것은 최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제례 의식이 끝나고도 3일 동안 이어지는 여흥 가무는 교방문화의 꽃이자 현대 문화축제의 효시로 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의암별제는 문화재청의 [2022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2024년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암별제가 만덕제와 다른 점은, 150여 년 전 의암별제를 창설한 정현석 목사가 『교방가요』로 그 의례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남겼고, 그 기록을 복원하여 고증대로 봉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물을 기린다’라는 정신은 같지만, 의암별제는 그 제사 의식 자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만덕제는 그에 비하면 그 의식 자체가 특별하다기 보다는 집안의 어른을 모시는 제사와 비슷한 느낌이다. 그 옛날, 제주를 살린 ‘만덕 할망’의 정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성들이 제관이 되어 제주의 ‘어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느낌이다.

김만덕은 제주의 대표적인 의인이며 자랑스러운 위인이다.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만덕제는 그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기록과 전문적인 전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형문화재 준비 중인 의암별제처럼, 만덕제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제례’로 거듭나길 하는 바람이다.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스케치
세계 속의 만덕 할망,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하여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제주를 넘어 국제적 협력과 연대로 나아가고 있다.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하 김만덕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세션을 개최했다.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로 추진 중인 김만덕상의 국제화를 주제로 김만덕국제상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축사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인사말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개회사·사회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기조발표	고두심 배우/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
발표	프레다 미리클리스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
좌장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토론	양원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경애 (주)BT&I 대표이사 / 김만덕상 수상자

행사 스케치①

세션을 시작하며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고견 모아길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세션은 지난 5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해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축사를 전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 : “공공외교의 장인 제주포럼에서 의인 김만덕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만덕재단 양원찬 이사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세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대신해 김대진 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대진 부의장 :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김만덕국제상 세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빈곤 퇴치와 굶주림의 종결은 전 지구적 당면 과제이며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는 바로 공존입니다. 이제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는 필수입니다. 빈곤 퇴치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이 세

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나눔 문화를 실현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고전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김만덕의 후예들이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가길

양원찬 김만덕재단 이사장은 세션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UN MDGs)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1억 5천 명 더 늘었고,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이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며 인사말을 이어갔다.

양원찬 재단이사장 : “조선시대 제주에서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굶어 죽기 직전의 제주인들을 살렸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CEO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거상이자 불우한 환경과 차별적 성별, 엄격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개혁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80년 김만덕상을 제정해 김만덕의 후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웃 사랑과 사회 환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오늘의 김만덕 후예들이 수백 년 전 김만덕 정신을 되살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전쟁, 난민 문제, 기후 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이라는 동양의 여성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가치는 세계의 어느 의인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인 김만덕이 제주라는 섬을 어떻게 구했고, 그의 후예들이 어떻게 세계 평화

의 섬 제주를 일궈는가에 주목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양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양원찬 이사장은 김만덕국제상을 통해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가치와 김만덕의 정신을 세계와 공유하고 각국에서 활약하는 김만덕의 후손들을 발굴하고 협력하고자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공존, 나눔을 위한 연대는 인종도, 성별도, 국가도, 지역적 한계도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오늘 세션에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김만덕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나눠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관심과 지지 호소

이어 개회사를 맡은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결집을 강조했다.

문순덕 원장 : “제주포럼에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세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결집하고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원하는 김만덕국제상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시각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스케치②

기조발표 & 발표

제주의 나눔 할망 김만덕, 인류를 구원할 새 인간상

제주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김만덕 기념사업을 이끌어 온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는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나눔 문화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이어갔다.

고두심 재단이사 : “저는 오늘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 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김만덕국제상을 제정하자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재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제주 사람들을 살린 김만덕의 나눔과 헌신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빈곤 퇴치와 부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덕처럼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 용기는 인류를 지속가능하게 지탱해 온 힘입니다. 제주의 나눔 할망 김만덕은 인류를 구원할 새 인간상입니다. 제2, 제3의 김만덕이 행한 은혜로운 빛이 온 세상에 퍼져갈 때 우리 인류에 닥친 위기는 평화롭게 극복되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의 고전을 모아서 김만덕국제상 제정이라는 훌륭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후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는 18세기 말 사회적 구휼 활동에 투신한 김만덕처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나눔과 자선활동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만덕국제상 제정이 세상을 변화시킬 첫 행보임을 재차 강조했다.

인류의 당면 과제,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는 필수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세션이 마련된 의의를 설명하며 좌장을 맡은 예종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소개했다.

문순덕 원장 :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는 곧 공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시대에 빈곤 퇴치는 인류 전체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제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는 필수 과제입니다. 김만덕국제상 제정은 전 지구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나 단체, 사회 환원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 또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을 통해 빈곤 퇴치 활동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오늘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은 예종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경제학·경영학 박사이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역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예종석 명예교수(좌장) : “국민배우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저는 문득 김만덕 할머니가 환생하셔서 우리를 꾸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김만덕 할머니의 존함만 떠올려도 항상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김만덕 할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 228년 전에는 감히 지금처럼 성평등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주도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우리나라 나눔 정신의 정점에 있는 위인이자 의인입니다. 이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런 분을 본받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프레다 미리클리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성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평화에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것

프레다 미리클리스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



프레다 미리클리스
커먼웰스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대표

성 리더십 : 세계 여성 경제인 네트워크와 호주 이니셔티브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프레다 대표는 56개 정부에서 인정한 여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유일한 공인 조직인 '커먼웰스(영연방) 여성경제인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글로벌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호주-그리스 이니셔티브(THI)' 이사이자 '박애를 위한 여성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프레다 대표는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 리더들이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 리더십을 재차 강조했다.

프레다 미리클리스 대표 :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운명과 행운, 기회의 여신인 티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지닌 운명의 화신이었습니다. 티케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책임졌습니다. 이는 역경 속에서도 다른 이를 위해 운명의 열쇠를 사용한 제주 신화 속 가문장아기와도 닮았습니다. 티케와 가문장아기, 김만덕은 모두 많은 장애물을 딛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깨달았으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김만덕뿐만 아니라 제주에는 상징적인 해녀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계 생존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마을과 섬 전체의 경제를 번영시켰습니다. 여성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여성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성의 힘과 잠재력을 활용하고, 이를 영감을 주는 나눔으로 연결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김만덕국제상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행사 스케치③

토론 세션



예종석 명예교수



양원찬 김만덕재단이사장

토론1. 김만덕 선양사업의 성과와 김만덕국제상의 비전

마지막으로 김만덕국제상 추진을 위한 토론 세션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예종석 명예교수는 토론에 참석하는 양원찬 김만덕재단 이사장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예종석 명예교수(좌장) : “먼저 양원찬 김만덕재단 이사장님은 한양대학교 총 동문회장을 역임하셨고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주치의도 역임하신 바 있으며 무엇보다 제주 사랑, 김만덕 할머니에 대한 사랑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덕 선양사업의 성과와 김만덕국제상의 비전’을 주제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양원찬 김만덕재단이사장은 ‘김만덕 선양사업의 성과와 김만덕국제상의 비전’을 주제로 토론에 임했다.

양원찬 재단이사장 :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문자 대표님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대표님, 그리고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님들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혁 제주은행장님도 오셨는데, 제주은행이 김만덕나눔적금을 만들어서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3만 명이 가입하는 뜻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한편에는 김만덕상이 국제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다 대표는 10년 전 전문직여성연맹(BPW) 세계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을 때 뵈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김만덕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고두심 재단이사님 덕분에 김만덕기념사업회나 재단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은 김만덕 선양사업을 위해 재단과 10주년을 같이 했고, 앞으로도 김만덕국제상 제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송경애 (주) BT&I 대표이사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세션에 함께 해주서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TF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만덕국제상 제정 연구와 법적 근거 및 예산, 재정위원회 구성 등을 속도감 있게 계획하고 구성해 제주포럼에서 이른 시일 내 김만덕국제상을 시상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강조합니다.”

토론2. 국제자유도시 제주,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 방안

두 번째 토론은 ‘국제자유도시 제주,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의와 다자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양 이사장은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과정에 큰 힘을 보탬 것을 다짐했다.

양영철 이사장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우리 센터의 세계화에 대한 열정이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K-교육의 표본이 되었고, 올해 카이스트 입주가 추진 중입니다. 이렇듯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노력이 큰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백 명에게 해외 영어 캠프 무료 교육을 실시하며 김만덕 할머니의 표상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1위는 단연코 ‘김만덕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만덕 할머니가 반드시 국제상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원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힙니다. 김만덕국제상이 모든 제주도민의 희망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김만덕 할머니의 이름을 앞세워 제주도의 모든 상이 국제화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녀

사업도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행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토론3. 김만덕상 수상자의 관점에서 본 김만덕국제상의 의의.

마지막 토론회는 ‘김만덕상 수상자의 관점에서 본 김만덕국제상의 의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좌장인 예종석 명예교수가 마지막 토론자를 소개했다. 송경애 (주)BT&I 대표이사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2011년 ‘아시아 기부영웅 48인’에 선정된 여성 리더이다.

송경애 대표 : “저는 1987년 스물다섯 살 때 자본금 250만 원으로 BT&I라는 여행사를 창업했습니다. 2006년에 첫 여행사 여성 CEO로서 BT&I를 국내 최초 MICE 전문여행사로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35년 전 당시 비즈니스는 남성이 지배적이었고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을 이끄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입견과 대립하여 여성으로서의 제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사업의 경험은 저에게 더 큰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013년 제34회 김만덕상 경제인상을 수상하면서 큰 영광이자, 동시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만덕상 수상 이후 해외 아동 보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이야말로 전 세계 여성 경제인이 본받아야 한다고 할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취지에 여성 기업인으로서 강력히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세계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김만덕의 정신과 K나눔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도전과 성공, 그리고 사회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며 김만덕상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송경애 (주)BT&I 대표이사

행사 스케치④ 세션을 마치며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공고화

이로써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세션 참가자들의 공통된 고견은 김만덕의 선행은 진정성 그 자체이며 이 세션을 통해 김만덕국제상을 만들어 세계의 여성들이, 또한 우리 인류가 본받는 그런 위인으로 거듭나게 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세션을 성공리에 개최한 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만덕재단이 TF팀을 구성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를 김만덕국제상 시상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Part. 2

은광연세 은光衍世 테마 이야기

테마4. 세상:세世 - 2023 나눔 행사

도내 4개 나눔기관 공동사업 - 나눔으로 모두 행복한 제주를 위해 맞잡은 손	106
2023 만덕문화대상 ‘어린이 문화 콘텐츠 공모전’	107
김만덕기념관 나눔봉사학교 나눔가족봉사단	110
김만덕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112
김만덕기념관 만족도 조사	114
김만덕기념관 후원 및 기탁 리스트	116

도내 4개 나눔기관 공동사업

나눔으로 모두 행복한 제주를 위해 맞잡은 손

김만덕재단은 제7회 김만덕주간을 맞아 도내 주요 나눔기관과 손잡고 제주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만덕재단 양원찬 이사장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태근 회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김만덕주간 공동 나눔사업과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공유해 제주도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 및 기부,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연구·조사 활동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열린 7회 김만덕주간을 시작으로 김만덕재단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나눔사업에 동참해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태근 회장, 김만덕재단 양원찬 이사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

2023 만덕문화대상

어린이 문화 콘텐츠 공모전



‘2023 만덕문화대상 어린이 문화 콘텐츠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김만덕과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알리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김만덕’, ‘나눔’이었으며,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초등학교 6학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글, 그림, 영상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어 김만덕과 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졌다. 공모전의 응모작 중 수상작으로는 초등부 21점, 유치부 14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에 선정된 작품으로 초등부에는 그림 작품 ‘끝나지 않은 은혜(현수연)’가 선정되었으며, 유치부에는 그림 작품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원유하)’가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우수상에는 초등부 5점, 유치부 3점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초등부 15점, 유치부 10점이 입선했다.

초등부 대상



끝나지 않은 은혜 그림
동화초 6학년 현수연

유치부 대상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그림
햇살가득어린이집 기린반 원유하

초등부 우수상



제주를 품은 김만덕 그림
대흥초 5학년 정리안



굵은 사람 없을 때까지 그림
한국고원대학교부설월곡초
2학년 김시울



함께사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출발! 그림
제주북초 5학년 양서진



가족봉사로
따듯한 마음 나누기 그림
번암초 6학년 최예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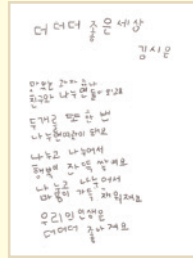


만덕할망 찾앙
가보꾸과 영상
이도초 3학년 양윤슬

유치부 우수상



감사해요 김만덕!! 그림
마야유치원 고예린



더더더 좋은 세상 그림
한라유치원 예술나라반
김시은



김만덕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림
신천어린이집 열매반 박소울

초등부 장려상



제주는 나의 꿈 영상
애월초 5학년 송진우



만덕할망 영상
한라초 3학년 구민서



무제 그림
도남초 2학년 정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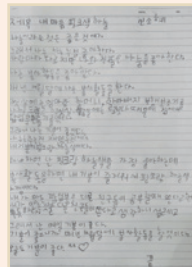
김만덕의 사랑의 나눔 그림
함덕초 5학년 유서린



장사의 신 김만덕
할머니와 만선 그림
삼양초 2학년 김아영



기부를 하면 기부니가
좋아요!! 영상
참사랑유치원 다정2반 박서윤



내마음 핑크색 하늘 그림
리틀디즈니랜드 노벨반 신소혜



김만덕 나눔의 추억 그림
제주영락유치원 새롬이반
한채민



든든한 우리의 그늘!! 그림
파인슬레 어학원 김재희



우리를 살리시는 김만덕
할대니 그림
삼화초 병설유치원 다솔반
김도준



작은 나눔에서 큰 나눔으로 그림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
6학년 김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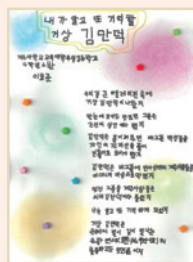
나눔의 행복을 가르쳐준
김만덕 그림
신천초 3학년 박다애



사람을 나눈 김만덕 그림
신천초 2학년 양지안



밀려오는 쌀 파도 그림
삼양초 1학년 임하빈



내가 알고 또 기억할
거상 김만덕 그림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
4학년 이효준



느영나영 장터에서
생긴 일 그림
제주영락유치원 기쁨이반
최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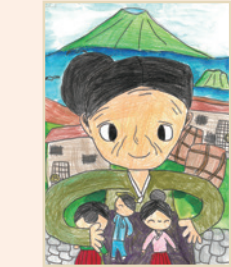
김만덕 할머니의 금강산
유람 그림
제주까리따스유치원
사랑스러운반 김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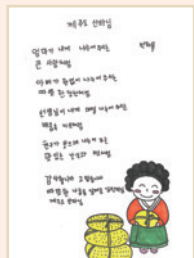
김만덕 할머니를
생각해요 그림
삼양초 병설유치원 햇살반
진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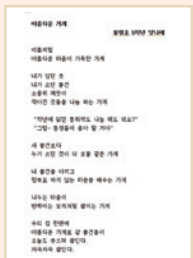
품어주세요 만덕할망!! 그림
제주영락유치원 밝음이반
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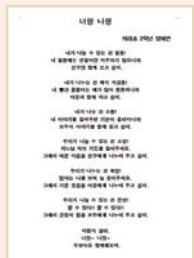
김만덕할머니의
소원 그림
제주영락유치원 고운이반
이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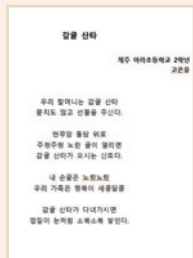
제주도 산타님 그림
배다리초 3학년 박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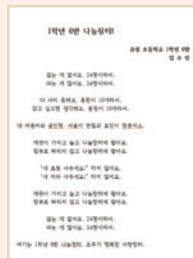
아름다운 가게 그림
월랑초 5학년 양나예



너랑 나랑 그림
아라초 2학년 양재민



감굴산타 그림
아라초 2학년 고은유



1학년 6반 나눔장터!! 그림
유림초 1학년 김수인

나눔 교육부터 봉사·플로깅·나눔장터까지, 나눔의 기쁨 함께해요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일상적인 나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나눔봉사학교 나눔가족봉사단>을 운영하였다. 4월 나눔봉사학교 입학식과 교육을 시작으로 환경정화 봉사, 산지천 일대 줍깅, 주거환경개선, 광지해수욕장 플로깅 활동 및 나눔장터까지 김만덕기념관과 함께한 올해 나눔 행보를 소개한다.

4월 15일 위촉식 및 전문봉사자 양성교육



13가족 25명이 참석한 나눔봉사학교 입학식은 위촉장수여와 함께 나눔봉사학교 오리엔테이션 및 보조기기 교육, AED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생활 응급처치 등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4월 22일 환경정화 봉사활동



김만덕 묘가 있는 모충사 및 사라봉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쓰레기 줍기뿐만 아니라 떨어진 솔방울에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솔방울 수거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5월 6일 산지천일대 줍깅 활동



이날 봉사활동은 김만덕기념관부터 탐라문화광장까지 산지천 일대에서 담배꽂초 등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6월 17일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아라주공아파트 거주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정서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만덕기념관 소속 나눔가족봉사단 회원들이 참여해 의류 정리 및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닦는 청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따뜻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7월 15일 '나눔을 잇다, 배우고 나누자'



나눔가족봉사단 소속 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만들기 체험을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나누하며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19일 광지해수욕장 플로깅 활동



이날 봉사활동은 광지해수욕장 일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9월 16일 '나눔을 잇다-어린이 나눔장터'



작아진 옷, 장난감 등 더 이상 안 쓰는 물건들을 집에서 가져와 판매와 나눔을 진행하였고 일부 참여자는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눔장터와 함께 김만덕 바람개비 만들기, 타투 체험, 동백 키링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즐거운 추억을 제공했다.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나눔문화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

2023년 한 해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매주 토요일 열린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만덕 어린이 나눔 학교와 김만덕기념관 개관 8주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 기억을 걷다>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까지, 올해 열린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상설교육 프로그램



2023년 새로 선보인 상설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김만덕의 생애를 동화 형태의 영상으로 교육하고 팝업카드, 종이극장 등 만들기 키트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김만덕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만덕 어린이 나눔 학교 <나눔의 시작을 응원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만덕 어린이 나눔 학교-나눔의 시작을 응원해!>를 운영했다. 구연동화를 통해 김만덕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 노력을 들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나눔이며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기억의 조각을 맞추다>



김만덕기념관 1층에서 열린 개관 8주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 기억을 걷다>



개관 8주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 기억을 걷다>의 전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 기간 동안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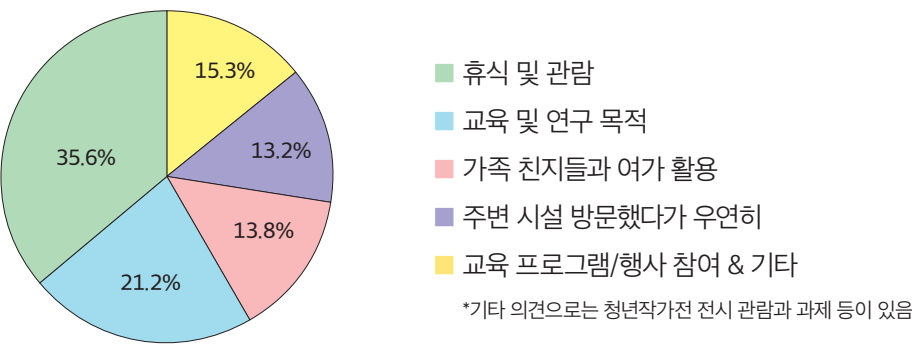
<산지천 : 기억을 걷다> 전시의 메인 테마였던 1960년대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퍼즐화하여 산지천의 변화된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공하였고, 활동지를 통해 특별기획전 관람은 물론 김만덕기념관 상설전시 관람까지 이어져 김만덕과 나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람객 92%가 김만덕기념관에 만족,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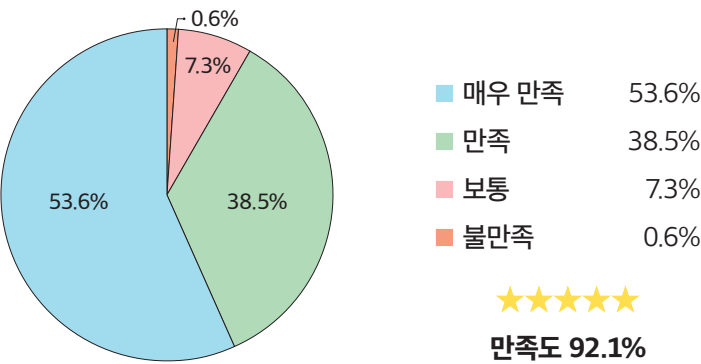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김만덕기념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
50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람객 92%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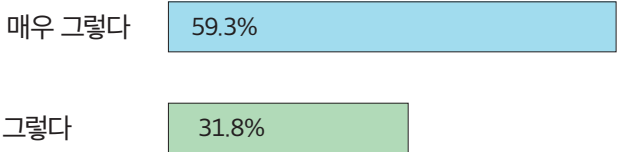
Q. 김만덕기념관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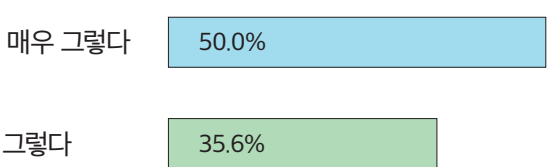
Q. 김만덕기념관 관람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Q. 전시물의 안내문 등이 있어 관람이 편리했나요?



Q. 관람/전시물에 대한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었나요?



한편, 기념관 실내 온도와 조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만덕기념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만족도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만덕기념관과 함께 하는 나눔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전해집니다”

김만덕 나눔사업 - 기부

김만덕 나눔사업에 기부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으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2023 나눔사업 후원 및 기부하신 분

(사)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주)원창이앤씨, W아너소사이어티, 강문구 교수, 건입동마을협동조합,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 제주지구, 국제라이온스협회 2020-2021 사자회, 국제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 김만덕기념관 관람객, 김만덕상수상자회, 김재윤, 김지훈, 덕산문화재단, 문재일 가족,
물항채리티인비테이셔널, 민무숙 일동, 박종호,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산지천축제위원회, 서귀포수협, 성윤란,
송연희 가족, 아이숲어린이집, 안전자동차공업사, 유슬기, 윤진호정형외과, 윤형준, 이덕실 가족,
야놀자 이수진 총괄대표, 이애순, 이원석 검찰총장, 이지숙, 이현준 가족, 자매국수 문애순, 장유정,
컬러풀산지페스티벌 컬러풀러너스, 제주농협, 제주만덕로타리클럽, 제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탐모라로타리클럽,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회사 윤앤컴퍼니,
천지라이온스클럽, 클라우드나인, 투빅커피, 한양대총동문, 한예슬, 한지살리기(이배용), 현동건, 강명호, 현지혜,
무기명 기부자, 김만덕주간 나눔올레 참가자일동, 김만덕주간 나눔나이트런 참가자일동

김만덕재단 CMS 후원

(주)아성기술단, (주)우리방재, (주)한독카리스산전, 강경필, 강민수, 강소빈, 강희자, 고복희, 고석연, 고수자, 고윤권,
고은재, 곽민, 권나예, 그린서비스(주), 김기문, 김기태, 김미정, 김복자, 김상훈, 김수안, 김수용, 김수정, 김순미,
김시우, 김애영, 김연수, 김영선, 김영숙, 김용석, 김은희, 김재훈, 김정미, 김조자, 김종래, 김종철, 김준문, 김추자,
김치수, 김치엽, 김향선, 김형미, 문관영, 문애순, 문양식, 문정홍, 문효진, 박동수, 박미경, 박선미, 박선영, 박순희,
박정환, 반성진, 성경숙, 송기명, 송승환, 송언주, 송연희, 신원식, 신정수, 씨니빌렌트카, 양은하, 양진영, 양채윤,
양하건, 오경지, 오형석, 위보환, 유태익, 윤봉실, 이가영, 이금실, 이민형, 이수정, 이유경, 이은아, 이정자, 이종례,
이종수, 이치봉, 이향숙, 이희춘, 이효인, 장혜련, 전귀연, 정경순, 정명희, 정자향, 조윤경, 좌봉남, 진춘자, 최명혜,
탐라위생방역, 한강연, 한승창, 현길호, 현말옥, 현성우, 홍경여, 홍민표, 홍성만, 홍성주, 홍용기, 홍혜경, 홍혜진

김만덕 나눔사업 - 나눔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전시관 김만덕기념관이
여러분의 기부와 나눔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이 제주 곳곳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건입동 주민센터, 대정장애인지원협의회, 대정적십자봉사회, 독립노인요양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무착선원,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사회복지법인 청수,
서귀포시 가족센터, 서귀포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청, 성이시돌복지의원, 송죽원, 수해이웃돕기 지원금,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연화원, 일도1동 주민센터, 재일제주인 지원금, 제주광역푸드뱅크,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시청, 제주의소리 마라톤대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창암재활원,
천사나래장애인주간활동센터, 한라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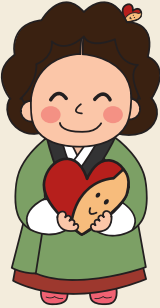


김만덕 사랑의 쌀 후원 안내



은혜의 빛이 온세상에 퍼지다

김만덕재단에 후원한 기부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김만덕기념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과
국내외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후원 문의 :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064-756-0805

김만덕기념관으로 다시 꼭 옵세~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재)김만덕재단과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2024 갑진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 恩光衍世

편집인	강영진(김만덕기념관 관장)	발행	(재)김만덕재단
진행	곽민, 김창현, 전학봉, 김미영, 김세영, 강혜원	발행인	양원찬 이사장
사진	전학봉 외	발행일	2023. 12. 30
교정	강혜원, 김미영, 김세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63278)
제작	(주)디자인위드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www.mandukmuseum.or.kr



